

공/지/사/향

제29차 연례 평의원회의 일시 및 장소변경 공고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미국을 비롯한 전 지구인의 일상의 평화에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전직 8 대 및 11 대에서, 카리브해 및 알라스카 크루즈 평의원회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루워진 전례도 있어서, 본인 임기 15 대에 들어서 버뮤다 크루즈 평의원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관련 여행사 및 임원들과 크루즈 행사를 위해 여러모로 홍보와 기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말 한국에서 급

격히 확산되어, 생명들이 위협받는 상황의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월 말 미주동창회는 주요 임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계획해오던 버뮤다 크루즈 선상 평의원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취소 후속 준비를 위해, 3월 초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 초 발생 사스 바이러스가 7월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제 29차 평의원회의를 예년보다 2개월 뒤인, 8월 21-23일(금- 일)에 지상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평의원 회의 행사에 필요한 호텔 예약과 프로그램 안내는 준비가 되는데로 다음 호 동창회 신문을 통해 공지하려 합니다.

평의원 및 종신이사 그리고 동문 여러분, 8월 21일-23일 2박 3일 예정으로 지상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 29차 평의원회의 행사에 일정 조정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류가 문명 사회를 이룬 역사 속에, 인류에게 닥친 역병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0%인 7천 5백만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간 흑사병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18년경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재난에도 인류문명은 발전하며, 오늘날까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며,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현명하게 대처해 왔음을 우

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동문들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그 회합에 참석하여 우리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도전들을, 더하여, 동창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어떻게 응전하고 극복해야 할지를 위해 원대한 시야를 갖고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끝이 불투명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온 인류의 현명한 응전의 능력을 믿습니다. Hoc Quoque Transibit!
신응남 배상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행동하는 양심으로, 찬란한 ‘불꽃’ 되어

서울대 4.19 선언문(1960. 4. 19)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邪惡)과 잔학(殘虐)의 현상을 규탄(匡正)하려고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땀땀이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거나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체정치도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으로 만든 호랑이 같이 어설픈 것임을 알려 준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의 역사가 적색전제(赤色專制)에의 과감한 투쟁의 거획(巨劃)을 담당하고 있는 데 크나큰 자부스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연역(演繹)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전제(白色專制)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4.19혁명 60주년

서울대 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관악산을 등지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대 캠퍼스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으로 수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 동문과 선배들이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래서 이곳에 민주화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우리 동문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4.19의 의의와 역사를 미래로 전승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한 명의 엘리트로서가 아닌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귀한 생명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우리 동문들을 기억하며 1960년 서울대 4.19 선언문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서울대 4.19 학생혁명기념탑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혜안(慧眼)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엔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전역(戰域)은 바야흐로 풍성

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公僕)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놓이게 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는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체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裸像)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하(威嚇)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생의 양심을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打手)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위 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A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류재풍
(법대 60)

/ 특집 칼럼 /

한미동맹의 목적과 역할에 관한 제언 (2)

한미동맹의 장래를 위한 장·단기적 고찰

나는 한미동맹의 결속/강화/확대를 주장한다. 이 주장은 동맹의 행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나 업적에 관해 나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합의된 약속을 지켜왔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에 크게 기여를 해 왔으니,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모두가 미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내며 우호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에 머물고 보낼 시간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우리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훌륭한 과거를 지내온 한미동맹이었지만,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고, 앞으로 당면할 미래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에 관해 지난 어느때보다 불안함을 느낀다.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불안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때도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 거시적 위협도 단기적 위협과 같이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중인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이 장기간 계속될 위험이 있다. 2가지 위협을 나누어 다루어 보자.

1. 한미동맹을 위협 #1: 단기적 고찰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지난 70여년 줄기찬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민족중조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될 북한의 행동에 공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2020년 신년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는 언급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생시키고 싶다고 세계에 호소하였다. 이 연설의 후속으로서 반동맹적 견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지도자로서 동맹국인 미국과 상의없이 대북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를 통일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때부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에게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이지는 확고하다”는 발언으로 일부 단체에 “김씨정권의 하수인이다”, “간첩이다”, “남북한을 적화통일로 이끌고 가고 있다” 등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미국의 정부인사들도 현재 한국 정부의 견해에 이성이 있고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 2018 9월 UN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평화협정의 당위성



을 피력하였다. 종전선언 다음에 따라올 것은 평화협정이다. 인류역사에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으로 평화가 성립되고 유지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평화조약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두나라 지도자들이 편의와 국익을 위하여 성립되나, 또 편의와 국익에 따라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조약 중 몇개의 예를 간단히 기술한다.

- a. 일·소 불가침조약: 1941 진주만폭격 8개월전에 성립 - 1945년 8월 / 히로시마 원폭후 3일만에 스탈린이 일방적 파기하고 소련이 만주와 내몽고와 38선까지의 한반도를 점령을 초래한 조약

- b. 독·소 불가침조약: 1939년에 성립된후 폴란드를 독소가 양분하고 2년뒤에 1941년 소련 침공을 시작한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휴지로 파기한 조약

- c.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연합 전선: 역사상 두 차례의 국공 합작이 있었다. 제1차 합작 (1924-1927): 소수 지식인 집단에 지나지 않은 중국공산당에게 중국국민당에 들어가 조직기반을 확대하라는 코민테른 (국제공산주의 연합조직)의

이근 몰락으로 자동 폐기된 조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월동주의 얘기, 삼국지의 적벽대전이전 조조의 침공을 막자는 목적으로 성립된 오촉동맹등의 예들도 생각할수 있다.

자고로 평화조약은 정권/정파/정당들이 자기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전쟁의 출혈을 잠시 중단하는 잠시간의 휴전 이외에는 평화에 어긋나는 계략의 소산물들에 불과했다. 이들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결속/강화 해야 할 것이다.

작년 2019년 10월 치외법권지역인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들어가 관저내에서 시위를 벌인 10여명의 진보세력의 대학생들이 있었다. 사건에 관해 현장경이나 여당은 아무런 공식언급도 없었으며, 담을 넘은 시위자들은 몇달이 지나도 조범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장권의 이와같은 모습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전방이 불투명하고 혼돈스럽게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한미동맹의 강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러다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해 우리가 할일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황이 달린 한미동맹의 존속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한미동맹을 보전하는 위협에 나서야 한다. 폭넓은 범국민적 토론을 지난 후에 내린 결단을 준수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범국민적 토론을 위하여 “한미동맹결속, 강화, 확장을 위한 국민투표”를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면 일석오효(一石五鳥) 돌하나로 새 다섯마리를 잡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ге 노인은 퇴교수가 제의를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닌것은 분명하지만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 한국현 정권의 정책을 노출시켜 이를 법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

- 2. 한미동맹을 위협 #2: 장기적 고찰 한미동맹을 결속/강화/확대해야 할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

기한 단기적 문제보다 더욱 무거운 과제가 다. 지난 30년간 급속히 변화해온 동아시아의 정세가 그 이유다. 20세기 후반부는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냉전의 긴장과 경쟁과 갈등의 시기였다. 냉전시대가 끝난 1990년 이래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수 많고 특이한 도전을 계속 받아 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다당정치, 인권존중 등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

- 헌법을 포함한 모든 것 위에 (Hitler의 “uber Alles” 와 Lenin의 “All Power to the Soviet” 유사) 존재하는 공산당.

- 공산당은 실수하지 않는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잘못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탓해서는 안되는 공산당.

이 위협의 중심 (eye of a hurricane)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은 금년 2020년 창당 99주년과 집권 73주년을 기념한다. 몰락한 구라파 공산당을 따라 중국공산당도 붕괴될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붕괴의 날자를 모른다. 소련은 70년 만에, 동구라파 공산국가들은 45년 만에 공산당 일당독재 집권을 건지지 못해 하나, 둘 차례대로 자체 붕괴되었다. 그러나 동양은 조금 달랐다.

아직도 공산당이 일당 독재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 중미의 쿠바를 제외하곤 모두 동양에 있다. 중국, 북한, 월남, 라오스 - 네나라... 구라파에서 붕괴된 공산정권들이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 남게 되었는가?

- 우리가 지나고 있는 21세기 초엽의 탈냉전 (Post Cold War) 시대란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20세기 냉전시대와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편의상 지금의 탈냉전시대 (1990- 2050?)를 주전시대 (走戰時代: 뛰는 전쟁)라고 명명한다면, 이 주전상태에서 한미동맹이 할수 있는 일과 추구할 목적은 무엇일까?

냉전시기에 평화를 위해 활약해 왔던 한미동맹은 본 주전시기에 보다 적합한 임지를 확보하고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走戰時代 라고 부르게 된 배경은 다른 기회에 밝히기로 한다.)

- 21세기 주전시대 (走戰時代: 뛰는 전쟁시대) 시대 동양에 존재하는 공산정권들은 21세기 서양의 공산정권들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정확히 표현 하려면 정치적유사점과 경제적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주전시대의 중국 공산정권은 냉전시대의 공산국가통치체제를 유지 내지 강화하면서 비공산주의적 경제발전에도 목표를

두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전시대의 중국공산당은 냉전시대의 쏘련공산당과 별다를 바 없는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헌법을 포함한 모든 것 위에 (Hitler의 “uber Alles” 와 Lenin의 “All Power to the Soviet” 유사) 존재하는 공산당.

- 공산당은 실수하지 않는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잘못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탓해서는 안되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는 공산당.

“그날, 교정은 자유의 외침으로 가득찼다”

4.19혁명 60주년

서울대에 울려 퍼진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4월 19일 정도 무렵 우리는 태평로 국회의사당을 거쳐 지금은 광화문이 들어서 있는 중앙청 앞 광장까지 달리는 후 잠기 연좌를 하고 있었다. 김치호가 우리 앞에 나섰다. 오전에 이미 경찰에 잡혀 심하게 구타를 당했노라고, 그러나 굶餓없이 불의와 싸워나가겠노라고 결연히 선언했다. 얼마 후 우리는 경무대 쪽으로 몰려갔다. 우리 앞에 이미 많은 학생들이 경무대 입구 가까이에서 전투복을 입은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곧 이어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졌고, 많은 학생들이 쓰러졌다. 김치호도 그 중의 하나였다...”

1993년 장희익 교수가 쓴 글 속에서 발견되는 김치호(金致浩)씨는, 60년 4월 19일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뛰쳐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은 6명의 서울대 선배 중 한 명이다. 또한 그는 단 몇 줄의 흔적이나마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서울대 4.19 관련 역사이기도 하다.



4.19 역사 고 김치호

고 김치호 열사 외에도 고순자(미대), 박동훈(법대), 손준근(사범대), 유재식(사범대), 안승준(상대) 등 6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그중에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도, 교수가 되기를 꿈꾸던 문학청년도, 고등고시를 준비하던 법대 학생도 있었다. 부패한 절대권력에 항거했던 그들의 순수한 분노는 두레문예관(67동) 앞을 4.19 공원에서 기억되고 있다.

4.19 당시의 서울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 도중 사망한 최주열 군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면서 4월 혁명은 금을 살을 타게 된다. 단순히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지탱한 착취수탈구조,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외세의 종의 매국정권, 냉전분단구조에 대한 항거로 이어 졌던 4월 혁명은 당시 유일하게 의식화되고 집단적일 수 있었던 학생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서울대 역시 그 역사의 순간에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산발적으로 데모를 해오던 서울대 학생들은 4월 15일 문리과대학에



1960년 4월19일 아침 교문을 박차고 나오는 서울대 문리대생들.

서 신입생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대의원회를 열고 거사에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은 정치학과 3학년들을 중심으로 격문 4000매와 리플렛 4000매를 프린트하는 등 19일의 거사를 준비하였다. 19일 아침에 등교한 학생들은 18일 고대 학생들이 폭행 당한 사실에 더욱 흥분되어,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을이라는 제목의 「4.19선언문」을 낭독하고 9시 20분 교문을 나섰다. 경찰의 곤봉에 피를 흘리며 바리케이트 뚫은 시위대는 원남동 로터리를 지나 종로 2가 파고다공원 앞에서 다시 방독면을 쓴 경찰대의 제2저지선과 마주쳤다. 여기서 한 10분쯤 연좌한 학생들은 뒤따라온 제2진과 합류, 고함소리와 함께 앞으로 내달렸다 이 때 4.19의 첫 최루탄이 발사되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최루탄을 뚫고 동국대, 성균관대 생 등 1만여명과 함께 경무대 앞으로 나갔다. 이 곳에서 앞서 말한 김치호 학생이 죽은 것이다.

피의 화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경무대에서의 경찰의 실탄 발포로 시민, 학생 수십 명이 사망, 부상당했고 전국적으로 124명이 사망, 558명이 부상당했다(정부 발표). 이에 4월 25일 전국 교수단이 14개항 시국선언문을 채택한 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했다. 이에 힘을 얻은 시민, 학생 1만여 명이 철야 시위를 벌였고 드디어 4월 26일 10시 20분,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했다.

4.19부터 5.16 사이의 서울대 민주화 운동 이승만 하야 이후에도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서울대 학생들의 경우, 4.19에서 61년 5.16 사이, 총학생회를 새로 꾸리고 바로 뒤의 7.29선거를 대비하여

국민계몽대를 발족, 전국의 선거구에 나아가 4월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선거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새생활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2대 약법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통일 논의가 활발해져 문리대, 미대, 법대 등 전 대학의 발기인 263명이 11월 1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 민통련은 이후 통일 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61년 5월 남북학생회담을 정식으로 제기하기에 이른다.

교내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각 단 대에서는 대의원과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서울대학교 학생회 헌장'을 제정, 공포하는 등 명실상부한 학생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문리과대학 종교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었던 신사훈 교수의 사퇴를 중용하고 철야농성을 벌여 결국 신교수가 학교를 떠나기도 하였고, 상과대학에서는 상대 총학생회가 결의문을 통해 어용 교수 축출과 무능 교수 배척을 요구하며 전학생이 동맹휴학에 들어가 결국 상과대학의 모든 교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교수진이 획기적으로 개편되기도 하였다.

한편 4.19 당시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학 교수들이 4.19에 의해 크게 각성하여 사회 및 학원 민주적 구조개혁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 흐름은 크게 당시 불법화되어 있던 교원조조운동과 대학의 자주화 내지 민주화 운동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특히 교수들은 학원의 자주성을 살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대학교 교수들



4.19 당시 대학교수단 시위.

은 6월 19일 서울대학교추진목회를 발족시키고 이를 교수협의회로 발전시켜 교수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총장 인준투표권과 하강인준, 그리고 교수 인사투표권 등 자율적인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사회 전반의 개혁, 특히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1960년 하반기 「대학신문」의 지면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지기도 하였다.

4.19를 기억하는 것

되돌아보면 바로 이 서울대라는 공간에서 4.19를 전후로 한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선, 후배들과 그 친구들이 경찰의 총에 의해 죽기도 하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하야하기도 하고, 대학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회대의 김진균 교수는 “4.19 당시의 학생운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그것은 ‘서울대생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만약 후배들이 과거 사회 변혁운동에 앞장서 왔던 선배들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그것을 ‘서울대의 정체성으로 삼게 된다면, 지금의 학생들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단순히 한 명의 엘리트로서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으로서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뒤따랐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서울대저널, 한국 학생운동사(1995), 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오십년사발간위원회,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50년사 (1997)]



이정근 (사대 60)

/ 내가 겪은 4.19 /

또 한번의 4월 혁명을 기대하며

필자는 입학한지 석 주일째 되는 날 4.19 학생데모에 참가했다. 그래서 4.19세대라는 의식을 지금도 선혈처럼 진하게 지니고 산다.

4.19혁명 15주년 되던 해, 필자가 서울신학대학교 젊은 교수였던 시절이었다. <조선일보>로부터 4.19학생의거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다. 15주년 전후에 꽤 인기가 있던 <젊은이의 발언> 난에 게재될 예정이었다.

일간신문사 원고는 대개 급히 써야 한다. 그래서 밤 새워 원고지에 정리해서 신문사 담당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 게재가 어렵다며 원고를 반환해 왔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끝난 뒤에도 그 설명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모처럼부터 제지당했다는 것이다. 원래 원고제목은 <4.19와 그 15년 이후>였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먼저 쏘아죽이려나”라는 본문 구절이 특히 문제가 되었단다.

그 후에도 신원조회만 하면 몸시 애를 먹었다. 미국 유학 올 때 그 원고를 몰래 몰래 숨겨 왔다. 200자 원고지 17매였는데 여기에 중요한 대목만 발췌해서 동문들과 함께 나눈다.

4월이 오면 한국의 꽃들은 선혈을 토한다. 학생들의 눈은 유난스레 영롱해지고 그들의 입은 비장을 머금으며 그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시민을 향하여 그리고 임금을 향하여, 아니 어쩌면 하늘을 향하여 목에 핏줄이 서도록 트림뿔을 불어댄다. 그것은 참혹한 시신이 되어버린 정의와 자유를 부활시키려는 4.19의 몸부림이요 함성이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햇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



서울대 입학 동시에 4.19 학생시위 참가 죽어가는 김주열 학생 눈앞에 어른거려

60년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희생 남북통일을 위한 불길로 또 다시 타올라야

익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서울대 학생회 4.19 선언문).

1960년 4월 19일, 만원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나의 귀에 고대 시위대가 정치강패들에게 잔학스럽게 짓밟혔다는 뉴스가 확성기처럼 웅왕 울려왔다. ‘에이, 못된 놈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튀어 나왔다...학교에 도착하여 첫 시간 강의 듣는 중이었다. 밖에서 무슨 함성이 들려왔다. 우리는 사전약속이라도 한 듯

이 책가방을 교실에 남긴 채 우르르 물러나가 정문 앞으로 대열을 지었다. 모두 이심전심이었다.

돌진하는 도상에는 곤봉세례도 기다렸고, 눈물가스도 매복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날만 그런 것이 별로 위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신입생인 우리들이 대오의 앞장섰는데도 아무 무서운 것이 없었다. 눈앞에 어린거리는 것은 오직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하게 죽은 김주열 교교생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바로 내 얼굴처럼

럼 생각되었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청량리에서 종로를 거쳐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했다. 벌써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다시 중앙청을 돌아 이승만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했다. 그런데 경복궁 담을 끼고 효자동으로 들어서면서 저 멀리 경무대 경호원들이 집총자세로 서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데모대가 그 때 국민대학 건물을 지나 더 전진하게 되자 그 경호원들은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하늘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공포탄의 위협이었다.

“저놈들 봐라. 하나님부터 쏘아죽인 뒤에 우리를 죽이려는 것 아냐!”

나는 옆 친구들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총부리는 이윽고 우리를 향하여 불을 뿜었다. 고막을 찢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는 즉각 경복궁 담벽으로 뛰어가서 납작 몸을 붙였다. 한참을 콩 뿜듯 하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 저기에서 피를 흘리는 학생들과 골짜기 건너 도로에서 뛰구는 학생들이 보였다.

그 때에 우리 사범대학 학생 가운데서 두 명이 살해되었다. 손준근 선배(국어과)와 유재식 선배(체육과)였다. 나는 부상당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4.19혁명을 겪은 뒤부터는 처절한 죽음을 또 한 번 체험했다고 자주 되새긴다. 하지만 우리 모국인 한국을 살려내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우리 모국은 또 한 번의 4월혁명 불길이 타올라야 한다. 남북통일을 이루어 낼 4월혁명 말이다.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 통일이라던 열씨구 좋다이겠지만, 글썽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통일은 단연 자유민주주의통일이여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사일구 혁명 때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김태호(상대 57)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에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 조병옥 당수가 출마 했으나 선거 직전 뉴욕에서 병원치료중 사망해 부통령 선거전이 되었다.

이때 자유당 이기붕 부통령이 갖은 방법의 부정투표로 민주당 장면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자 전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4월 경남 마산항에서 부정선거 항의 데모를 했던 고교생 김주열군의 사체가 바다위에 떠올랐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항의 데모행렬로 이어졌다. 서울대학교는 단과대학 운영위원장들의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정부 해거티 공보비서가 한국에 도착하는 4월20일 오전부터 각 대학에서는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데모를 결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려대 학생들이 4월 18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데모행진을 하던 중, 수습병이 동원된 깡패들이 고대학생들을 각목으로 집단폭행, 종로 4가 전차길에 오십여명의 학생들이 도로에 쓰러졌다.

이 사건이 각 신문, 방송에서 크게 보도되었고 이에 분노한 각 대학은 물론 고교 학생까지 10만 여명이 19일 아침부터 경무대/중앙청으로 집결하여 선거무효와 정권퇴진을 외쳤다.

당시 상고대학 4년 학생이었던 나는 19일 아침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나익봉=타계) 등 친구들과 교우 100여명이 데모대로 구성하여 11시 학교 교정을 출발, 성동교, 동대문을 거쳐 국회의사당/법원앞에서 데



모를 계속했다.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경무대 앞에서 경찰 총격이 시작되었다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피흘린 학생들이 택시, 트럭 위에서 피묻은 옷을 흔들며 "우리의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고 외쳤다.

오후 3시경, 법원 앞에서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울지로 입구에 왔을 때 나는 친구들의 강경한 만류를 뒤로하고 혼자서라도 경무대를 가겠다고 이탈했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입구에 들어섰을 때, 수발의 총성이 울리고 나의 왼손목에서 펑하는 소리와 동시에 손등이 풍선처럼 부풀고 피가 튀어나오는 충상을 입고 말았다.

결국 34명의 학생 사망과 400명에 가까운

/ 내가 겪은 4.19 /

4.19로 이룬 정의와 진실, 한국 정치로 이어지길

시청앞 광장입구에 들어섰을 때,

수발의 총성이 울리고

나의 왼손목에서 펑하는 소리와

동시에 손등이 풍선처럼 부풀고

피가 튀어나오는 충상을 입었다.

.....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후세에 부끄럼 없기를

기원해 본다.

정의와 진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4-19 의거 60주년을 맞이하는 나의 감회를 표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에게서 4-19 의거가 지켰던 정의와 진실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모독한 반민주주의 정당배들이 활보하는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하겠다.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치인의 개선을 위한 보다 더 강력한 제도개선훈의 노력이 국민으로 부터 이루어져 후세에 부끄럼 없기를 기원해 본다.



최형무 (법대 69, 법률고문)

/ 이슈진단 /

COVID- 19 코로나바이러스

몇달 전만 해도 생각치도 않았던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려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늘 현재 세계 148개국에서 2십만명 이상이 감염되어, 8만명 이상이 회복됐으나, 9,8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 8천여명이 감염되어 91 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에서 1만명 이상이 감염자로 판명되어 2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미국에서 장차 테스트가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되면 감염자 숫자가 급증할 수 있다.)

한국 (South Kore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보고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경우 어떤 자료도 나오고 있지 않아 언론 보도가 통제되는 그 땅에서 어

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다행히 초기에 중국에서 입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도됐으므로 큰 전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에서 이미 새로 보고자로 확진되는 케이스가 매일 줄어듦과 있으며, 중국에서도 오늘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에서 새로 발병한 케이스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비즈니스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긴급사태가 선포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유급휴가와 실업보험, 무료 테스트, 식품 및 의료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국민 개개인에 연방정부에

서 현금지원 체크를 보내기로 준비하고 있다. 전체 지원의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나라를 이끄는 전시 대통령(war time President) 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 등지에서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나 시행전 테스트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백신이 사용되려면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바이러스를 COVID- 19 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 바이러스를 다른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총체적으로 불리는 여러 바이러스가 독감이나 감기에 유사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대량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조속히 가라앉고 상황이 종료되어 세계가 하루 빨리 안정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천재지변이나 비상상황이 올 때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힘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다. 전염병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문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고없이 찾아 왔는데, 이미 수도 없이 예고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재앙이 올 때 우리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분석 예상하고 있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국민과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하여, 국가 정책과 법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활 패턴도 바꿔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과학칼럼 /

오해와 편견 없는 과학이 바이러스 물리친다



이정근 (공대/서울대 명예교수)

기나긴 인류 역사는 고난을 이겨내며 흘러왔다. 가장 두렵고 힘든 고난은 당연히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지요, 결국 질병과 싸우면서 이를 물리쳐 온 과정은 인류사의 큰 줄기인 셈이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떤 종(種)의 동물이건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천적(天敵)에게 먹잇감으로 희생당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중도에 생명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어 천적은 없었다. 그러나 질병은 그렇지 않았다. 20세기 초, 즉 1900년에도 인류의 기대수명은 고작 30세였다. 이는 100명의 아기가 태어나서 절반은 영아기에 사망하고 절반은 60세에 못 미쳐 세상을 떠나는 경우다. 얼마나 희귀했으면 나이 70을 고희(古稀)라고 불렀을까? 그러나 이제는 모두 100세 시대를 이마기할 정도로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매개체를 파악한 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적군인 바이러스는 가끔씩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

다. 조금은 새로운 형태여서 신종(新種)이라 부르지만 실은 이미 알고 있는 존재다. 최근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 형태가 마치 개기월식의 경우처럼 주변이 밝게 보여서 코로나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우리가 이겨냈던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크게 다를 것 없었다. 이들의 정체를 밝힌 과학의 힘을 빌리면서 협력적으로 대처하면 될 일이다.

과학은 자연현상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지적(知的) 활동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나무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지는데 그보다 훨씬 무겁고 더 높은 곳에 있는 달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밤낮이 바뀌고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도 이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임을 알지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적어도 몇천 년을 고민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새로운 학문세계를 열면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과학의 목표가 자연의 진리를 찾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현상에 대

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소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힌 천문과학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인류가 지녔던 크나큰 편견을 없앴다. 그리고 세균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신이 인간 세상에 내리는 천벌(天罰)이 바로 질병이라는 아주 오래된 종교적 오해를 불식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물리치는 일에도 오해와 편견 없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해는 진실을 감출 때 발생하는데, 이것이 질병에 관련된 경우에는 큰 피해를 갖고 온다. 한 개인에서부터 조직과 단체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도와줄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거나, 혹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마귀 짓이라는 등의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과학적 무지에 기인한 이런 일들은 정말 최악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약 3년간 계속됐다.

이는 당시 세계 인구 19억 명 중에 5억 명이 감염되었고 결국 약 5000만 명이 사망한 재난 중의 재난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은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수준과 방역 및 질병관리 체계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악했고, 또 전반적인 공중위생도 형편 없던 시기였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달 독감이 엄청난 재앙이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있던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이 자국 군인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 현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스페인은 그와 다르게 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독감 퇴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그 바람에 엄청난 누명을 쓰고 이름이 남았다. 스페인은 사실 스페인 독감과 무관한 나라다.

질병관리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대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경각심은 갖되 공포를 지나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출처=동아일보>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70주년 6.25 한국전쟁 특별원고 모집

본단의 아픔과 수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주 서울대동창회에서는 한국전쟁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전후세대에게 올바르게 알릴수 있는 소중한 글을 모집합니다.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의 내용	6.25 한국전쟁에 대한 의견이나 기념할만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글의 양	500 단어 (글자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만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dd.org 로 보내주세요
원고마감	2020년 5월 10일(일)

***원고 보내실 분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태상 (문리 55)

인생이 일엽편주 같다면

행위예술이니 음주문화니 하는 말이 있다면 끄연문화란 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좀 그렇겠지만 내가 젊었을 땐 더욱 그랬었다. 술과 담배를 해야 매력있는 것처럼 술과 담배 선전 광고로 세뇌되어 억지로라도 술과 담배를 해야 했다.

나도 한때 젊어서는 술 한 잔에서 인생의 낭만을 맛보고 담배 연기 한 모금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무상의 덧없음을 관조하고 달관하는 시선(詩仙)이나 도사(道士)라도 된 양 행세하며 욕망을 떨었었다.

음주 끄연 행위 실험예술의 한 표본을 들어보리라. 영국 북부 요크셔지방 애플트리윅이란 곳에 '새 주막'이란 정원 대포집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당시 77세의 이 대포집 주인 사위 씨는 10년째 이 대포집에서 금연운동을 해왔다. 1971년 담배를 많이 피우던 그의 여자 친구가 암으로 죽자 이 정원 대포집에 정자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진 현판을 달아 놔다.

1971년 9월 29일
담배로 인해 생명을 잃은 반지를 추모하면서
이 여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조그만 정자를 만들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할 때 건강을 존중해
금연할 것을 간곡히 권하노라.

이렇게 금연운동을 해온 지 10주년을 맞아 사위 씨는 정원 한 끝에 그가 죽으면 반티 곁에 묻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가 죽은 뒤에도 이 금연대포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생전 육성으로 녹음된 담배의 해독에 대한 그의 경고를 들려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다. 사위 씨의 기억으로는 이 금연대포집에 와서 담배를 피운 손님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한 축구 선수가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리자 이 손님이 사위 씨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러자 인심 좋은 대포집 주인답게 사위 씨는 손님 머리에 생맥주를 부어주었다. 그 후로 이 손님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서 나는 회심지우(悔心之友)를 만난 듯 또 다른 회상에 잠겨 아련한 향수에 젖었었다. 호탕 방탕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퍼마시면서 줄담배로 밤을 새워가며 인생을 논하고 사랑을 꿈꾸며 젊음을 구가

mantic education)에서 이렇게 말한다. '글 쓰는 사람이 나는 되고 싶었다. 글을 쓰면서도 의사나 교사, 미생물학자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밖에도 영화배우, 해양학자, 수목관리인 등의 직업이 내겐 매력 있었다. 별로 매력적이 아니었으나 그저 나는 글을 썼을 뿐이다. 그 보상으로 돈 보이던 다른 모든 일들이 근처에 접근조차 못할 만치 생생한 현실감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직업의 유



하던 시절로 돌아가...

정령 아름다워라.
아니 애달퍼라.
젊음이어 삶이어,
아니 더할 수 없이
덧없고 애뜻한
목숨이어 생명이어,
촛불 같이 타리라.
아니 아지랑이처럼
하늘하늘 피어오르리라.
바람에 실려 구름 타고
또 다른 별세계로.

진실로 인생이 망망대해에 떠드는 일엽편주 같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의 메와작가(memoirist) 파트리시어 햄플(Patricia Hamp 1946 -)은 그녀의 회상록 '하나의 낭만적 교육(A ro-

혹도 날 사로잡지 못했고 결국 글 쓰는 일로 귀착되었다. 글 쓴다는 것이 얼마나 모든 일에 나 자신을 몰입시켜 내 본질을 시험하고 실험하는가를, 다시 말해 세상 모든 걸 내포하는 것임을 내가 직감했기 때문이다. 글 쓴다는 게 모든 것의 핵심요체(核心 要諦)로 모든 사물의 심혼(心魂)이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의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임을.'

지당하신 말씀이다. 글 쓰는 사람 따로 없이 우리 모두 다 글 쓰는 사람이다. 손으로만 쓰지 않고 눈, 귀, 입코, 머리와 가슴은 물론 오족(五足) 팔 다리 발바닥으로도...사람이 참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건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그 신비로움에 경탄하며

축복된 삶의 기쁨을 순간순간 만끽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주입식 암기식 응시요령의 앵무새 학교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국 방방곡곡 여러 곳으로 또 가 능하면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며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으랴.

직장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국에 가 살면서 애들 학교 친구들이 특하면 부모 따라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해외로 여행다니는 것을 나는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었다. 한번은 신문에서 영국의 어느 한 가족이 가산을 다 정리해서 배 한 척을 구입, 몇 년을 세계 각지로 항해할 여장을 갖추고 나이 어린 세 자녀가 뱃을 책임도 수천 권을 싣고 영국을 떠났다는 기사를 읽고 그 용단에 나는 크게 놀랐었다. 그러다가 1978년 여름 우리 가족이 영국을 떠나 하와이로 아주, 6개월 동안 미국 각지와 한국으로 여행한 후 애들 음악교육 때문에 영국으로 되돌아가 애들이 먼저 다니던 학교에 복교했을 때 애들 학업 성적이 전보다 떨어지기는 커녕 더 나아졌었다. 몽땅 빼먹은 지난 가을 한 학기 수업을 따라가려고 분발해서였는지 아니면 여러 곳으로 여행하면서 정신적 또 정서적으로 많은 자극을 받고 애들의 잠재능력이 더 많이 개발되었던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 후로 언젠가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미국의 어느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로부터 대학 4년 다닐 학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학 다니는 대신 세일링 보트로 세계일주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얼마나 멋진 진학코스인가 찬탄을 금치 못했다.

실로 인생살이가 망망대해에 떠도는 일엽편주(一葉片舟) 같다면 우리 각자 자기 나름의 방향 감각을 갖고 자기가 향해해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되고 싶은 별이 되어보는 것 이상이 없지 않겠는가 하며...



/ 미국시인 소개 /

Sultan Catto 설탄 캐토

BLUEBIRD

As silence spreads her long feathers
like notes from an old fantastic grief
into the black depths of my soul,
a little bluebird visits me

each and every evening on the balcony,
trying to make my thoughts move on
towards the sea, toward mindlessness,
distracting me from sorrows.

She sings a sad song in an autumn cloud
on those lonely nights when
I, too, can't help but get long winded
like a poet and a horn player.

I only wish I could scale over the hills,
view life from such heights,
and not leave footprints behind in the mud,
like an ordinary beast.

Fly bird,
fly away,
teach me to disappear



U-TURN

I cannot convert my heart into a stone
and let the hard lines of my verses
take shape within.
For me every poem is a dream,
every stone a flower.

I cannot let my tears vanish loudly into dreams,
will not let them evaporate on my lips
like drops of alcohol.

I no longer walk in the Anatolian hills
in the midst of olive trees
trying to come up with an ultimate verse to say
that life is here, not there.

I am getting old
and am just beginning to write.

Sultan Catto, the world-renowned physicist, who was advised by Joseph Brodsky, Nobel Prize Winner, to give up science in favor of poetry. Now, after many decades of discovery and teaching as a physicist, he has, at last, not given up science, but has definitely turned to his other significant talent: poetry. Each of his poems is a narrative link to his childhood memory and expansive thought about the universe and Man's place in it. To read Catto's poetry is to take a walk to the past, through the present, with illuminations of the future, to the stars.
— Bill Wolak, Poet

파랑새

황홀한 옛 슬픔의 음표처럼
내 영혼의 깜깜한 나락 속으로
침묵이 긴 깃털을 펼칠 때,
작고 파랑새 한 마리 발코니에
매일 저녁 날아온다,
바다를 향한 무상을 향한
내 사색이 계속되게 하며,
슬픔을 잊게 한다.

나는 다만 언덕 위로 올라가
그렇게 높은 데서 인생을 관조하며,
평범한 짐승들처럼 진흙 속에
발자국 남기기를 원치 않는다.
새야 날아라,
멀리 날아가라,
사라지는 법을 내게 가르쳐다오.

그 고독한 밤에 시인이나 뿔피리 연주자처럼
나도 긴 숨 오래 내뿜아 쉴 때
그녀는 가을 구름 속에서
슬픈 노래를 부른다.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유-턴

내 심장을 돌로 바꿔서
내 시의 딱딱한 구절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
내게 있어 모든 시는 꿈이며,
모든 돌은 꽃이므로.

내 눈물이 꿈속으로 요란히 사라지게 않을 것이며,
알코홀 방울처럼 내 입술 위에서
증발되게 하지 않겠다.

인생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의
궁극적 표현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아나톨리아 언덕의 올리브나무 사이를 걷는 일
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막 시작詩作을 시작하고 있다.

*아나톨리아 Anatolia :
현재의 터키 지역을 말함.

Sultan Catto is a mathematical physicist. He is also a fine and caring teacher, a father of two sons, a husband to an artist, a child of many Eurasian lands, forced by circumstances to live here and there, learning various linguistic idioms and the language of the stars. He is also a unique poet, whose daily writings I am privileged to read and tweak for minor English matters. I've thus far also had the honor of co-publishing his poetry in two book editions, a broadside, and a postcard. Most of all I've been graced with his friendship. I'm truly grateful.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김광현 (미대 57)

/ 미술 읽기 /

반 고흐, 왜 귀를 잘랐나?

빈센트 반 고흐(1853-1980)와 세잔느, 고갱 등 세 사람은 네덜란드 후기 인상 파의 3대 화가로 루벤스(Rubens)와 렘브란트(Rembrandt)의 영향으로 인상주의 화풍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반 고흐는 초기 인상주의의 화풍에 매료되어 색채 개념과 광선 및 공간이 갖은 마법적인 현상에 심취되어 37년의 짧은 생애 중 10여년간, 879 점의 그림과 1600여점의 드로잉의 걸작 등 2100여점과 많은 서한집을 남겼다. 엄격하고 정직한 교육을 받은 그가 말년에 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른 신화적 사건과 자살로 생을 끝냈는지? 극단적 행동주의로 많은 의문을 갖게 했는지? 자신을 자학하고 생을 체념한 원인들과 그의 짧은 생애를 통

렷다. 그의 열정은 종교적 사명감에 투철했으나 극한적 가난의 영양실조를 겪기도 했으며 목사가 되려는 신념과, 한편 화필을 놓지 않고 혼신의 작업을 했다. 1881년부터 5년간 고향에서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생활상을 화폭에 그렸으며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몇 달 간,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했으나 큰 영향을 갖지 못했다.

둘째, 1886년, 그는 파리로 이사 한 후 당시 화가들을 만났다. 피사로, 드가, 고갱, 슈레, 로트렉 등, 그들의 화풍이나 새 기법 등을 참고했으며 특히 화상을 통해 수입되는 사실성과 인상주의를 도외시한 '우키예오' 기법 (2005년, 일본 풍속

셋째, 1886년 2월, 고흐는 화상을 하는 친 동생 '테오'가 도와주는 하숙비로 몽마르트로 이사 후 많은 미술가를 만난 중 가장 친밀한 화가인 인상주의, 야수파에 속하는 '폴 고갱'(Paul Gauguin)이었다. 2년후인 1888년 2월에는 고흐와 고갱이 '예술가의 식민지를 조성하겠다'는 꿈을 안고 프랑스 남부 아를스(Arles)로 이사를 갔다. 이때는 고흐가 '압신트에 중독되어 있어 엄청난 환각 상태에 있었고 고갱을 공격하는 발작을 자주하며 그를 해치기도 해, 격한 싸움을 하기도 했다. 둘이 2년간 같이 지냈으며 고흐는 15개월간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으며 고흐는 고갱의 여러 성격과 작품의 표현법이 너무나 상이했

서 한 날, 고흐는 환각증상이 극에 달해 이 둘이 칼을 가지고 격한 전쟁을 하는 중, 술잔에 '압생트'를 채워 고갱에게 던졌으며 평소의 검투사인 고갱은 검투용 칼로 고흐를 공격했으며 고갱은 무서운 분노와 노기로 목숨을 담보로 살인적 투쟁까지 가는 서로의 공격이 지나칠 무렵, 그 집을 나왔다. 혼자된 고흐는 손에 번쩍걸이는 예리한 직선 면도칼로 자기 왼쪽 귀를 (동근 돌출부)부분을 잘랐다.

고흐가 자기 귀를 잘르게 된 원인은 첫째는 그의 극심한 환각, 환청의 발효이며, 둘째는 절친한 고갱이 자기결을 떠난다는 이유겠고, 셋째는 자기를 도왔던 동생 테오가 약혼을 해 자기결을 떠난다는 협조자가 없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고흐 자신이 고갱이 떠난후 창의를 갖고 작업과 화실 유지가 어렵겠다는 많은 예측과 강박감에 사로 잡히게 된다는 일 일 것이다. 공포의 싸움이 끝나고 귀가 잘려 피투성이가 된 고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치소로 보내졌다.

귀를 자른 사건에 관한 의견들과 이 싸움에서 검투사이기도한 고갱이 고흐의 귀를 잘랐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사건은 자신의 정신적 병이 신체적 자해로 판단 났으며 고흐는 그가 잘른 귀 조각을 정부 겸 매춘부인 레이첼(Raichel)에게 '사랑의 증표(As a Token of Affection)'라고 주었다는 설(2016년)과 최근 The Art Newspaper는 매춘업소의 18세 청소부인 '게브리엘 버라티아'(Gabrielle Berlatier)에게 주었다는 다른 설도 나왔다.

넷째, 미래에 목사가 되려고 꿈꾸던 고흐는 성경(요한 18:10, 마태 26: 51 등)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 '말코스의 귀를 잘른 사실을 성서의 기록으로 주지하고 이 잠재성을 고흐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햇빛이 찬란한 아를스 지방의 에서 2년간 둘은 그림으로 절친한 우정을 키우며 노란집(Yellow House) 거실에서 작업을 하면



봉대한 자화상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프랑스 산 와인 Absinthe

한 경험과 목사가 되려는 의지와 친구와의 친교 및 그의 성격의 변화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고흐의 부친은 루터교파의 검소한 목사였다. 고흐는 어린시절부터 고독을 좋아했고 집중력이 강했다. 1869년, 16살에 세계적인 화상(Goupil & Co.)의 그의 백부 추천으로 헤이그에 있는 지사에서 일했다. 4년후에 런던 지점에서 일했으며 한 여관 여주인의 딸과 불행한 사랑에 빠져 성공적 못하고 상심했으며 자신의 일을 떠나, 1876년 무보수의 조교수로 영국의 한 학교로 들어갔다. 그러나 도심의 사회적 분위기에 실증을 느껴, 2년 후 교수직을 포기하고 예비 목사의 일을 위해 벨기에 '보리네이지'(the grim Borinage)주, 빈곤한 광부들이 사는 곳에 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했고, 그가 좋아하는 미술이 인간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을 터득케 하는 선교활동을 벌

목판화)과 소재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에서 강한 주제와 특이한 색채 표현에 도취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몽마르트 화실에서 만난 로트렉은 고흐를 동행하여 술을 마시러 다녔으며 그중, 프랑스 산의 술인 '압생트'(Absinthe, 쓴 숙으로 제조, 최고 \$530 짜리도 있음)란 술을 즐겨 마셨다. 특히 고갱, 로트렉, 마네, 피카소, 드가, 헤밍웨이, 오스카 와일드 등 두뇌를 많이 쓰는 작가 및 사상가들이 많이 마셨다. 술에 함유된 요소인 식물이나 꽃의 함유물을 튜존(Thujone)이라 하는데 그 중 속에서 추출되는 맛과 향으로 제조되는 이 독주를 많이 마시게 된 고흐는 오랫동안 귀울림을 앓아 그 고통을 벗기 위해 술에 만족하는 환청증이 증가해 청각적 환각상태 등 시각적 착시, 성격의 혼란, 등 발작이 일어나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고 이를 탈피키 위해 공격적 충동으로 친구를 해치며 때론 살인을 시도하려는 발작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 고갱은 사교성이 많고 환상적인 추상화는 부호들의 인기를 얻고 팔렸으나 고흐는 그의 작품을 팔지 못했다. 후에 세상 떠나기 1년전, 단 한점인 '알레스의 붉은 포도밭'이 팔렸다. 이들의 예술적 표현법과 관점은 서로 달라 항상 언쟁을 했으나 인정과 이해심이 많은 고갱은 고흐에게 물감 살 돈을 주기도 했고, 고갱은 고흐의 작품을 보고 한번은 '귀가 그러 지지 안했네'고 책망을 주어 이 말을 들은 고흐는 격하게 고갱에게 덤벼 들기도 했었다.

넷째, 미래에 목사가 되려고 꿈꾸던 고흐는 성경(요한 18:10, 마태 26: 51 등)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 '말코스의 귀를 잘른 사실을 성서의 기록으로 주지하고 이 잠재성을 고흐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햇빛이 찬란한 아를스 지방의 에서 2년간 둘은 그림으로 절친한 우정을 키우며 노란집(Yellow House) 거실에서 작업을 하면



송세진(치대 78)

/ 사진 이야기 /

옛사진 수집:Daguerreotype Portraits

Estate Sale에 다니면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은 60대에 들어선 필자에게 큰 기쁨이다. 주말에 미네소타의 에스테이트 세일에 다니면서 주로 수집하는 것은 Oil Painting과 오래된 흑백 초상사진이다. 약 170년 된 Daguerreotype 초상사진은 흑백이긴 하지만 다른 흑백사진에 비해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진판 자체가 은과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초상 바깥의 테두리에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색채의 둥근 Halo가 나타나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사진이긴 하지만 금테로 장식을 하고 있어서 따뜻하고 화려한 느낌이 든다.

초상(portrait, 肖像)은 어떤 인물의 모습이 그림이나 사진, 조각/조소품에 표현된 것이다. 초상이 제작될 때 그 인물은 유사함을 주로 요구하지만 예술가는 자신의 미술적 이상을 그 작품에 불어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Portraiture의 기저에는 언제나 영구성(permanence)이 깔려 있다. 어떤 유명 인물이 예술가에게 초상 제작을 의뢰할 때에는 영속적인 것을 원한다. 인간의 육체적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고 부패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림이나 조각, 사진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정지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문명에서는 항상 Portraiture가 발견된다 (Portraits: 5,000 Years, 1983, John Walker).

초상사진의 영구성은 1800년대 초반의 일련의 사진인화 기술의 발명으로 현실화되었다. 초기의 금속 사진 다게레오타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진의 현상과 정착을 쉽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이슈는 약 200년전의 사진 발명가들에게는 정말 큰 일이었다. 렌즈를 통해 잡은 영상을 Plate에 겨우 담기는 했는데, 이것을 영구히 정착하는 하는 기술은 쉽게 개발되지 않았다.

지금은 당연시된 사진의 정착이, 1839년



Portraits of Young Lovers, c. 1850, Daguerreotype, two 16th Plates (3.5 x 4 cm). Minneapolis (Minnesota)



Portrait of a Baby, c. 1850, Daguerreotype, 9th Plate (5 x 6 cm). Minneapolis (Minnesota)

에 프랑스의 다게르(Mandé Daguerre)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진 Daguerreotype 공정을 발표할 때까지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영화 Killing Fields (1984)를 생각해보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 탈출을 위해 프랑스 대사관에 피신중인 캄보디아인, 뉴욕타임즈 기자의 캄보디아어 통역사 Dith Pran. 그의 외국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 외국 신문기자들은 크게 노력한다. 지옥같은 상황에서도 사진기자들은 필름과 인화지를 모았지만 현상액과 정착액은 구하지 못했다. 여권에 그 주인공의 증명 사진을 붙여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Homme라고 적힌 화장실 안에서 사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남자 오줌에 든 Uric Acid로 사진 현상과 정착을 시도하는 것 같다. 겨우 흑백의 얼굴이 오줌 속에서 나오는가 했는데, 이내 그 얼굴은 젖은 종이 위에서 사라져 버린다. 우여곡절 끝에 여권사진이 정착되어 여권에 사진을 붙였다. 크메르루즈 앞에 그 여권을 제시해야 할 때, 여권의 증명사진은 또 사라져 버린다. Dith Pran은 캄보디아 탈출에 결국 실패하고 대사관을 떠나 크메르루즈에 의한 숙청작업의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카메라(camera obscura)에서 얻은 영상을 사진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800년대 초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엄청난



Portraits of an Old Lady and her Husband, c. 1850, Daguerreotype, two 6th Plates (7 x 8 cm). Minneapolis (Minnesota)

나게 시도되었다. 프랑스에서 1812년경부터 유명한 거장 Nicéphore Niépce가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전신기를 발명한 Samuel Morse가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을 해결한 인물이 Niépce와 함께 일했던 Daguerre이다. 다게레오타입 사진은 치과 충전물로 아직도 사용되는 Silver Amalgam과 깊은 관련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메라를 통해 빛에 노출된 은 감광판 속의 잠상(latent image)이 수은 증기에 노출되어 영상이 정착되는 것이다. 즉, 은 아말감 가루가 정착된 영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약 150년전의 다게레오타입 초상사진들이 아직도 변질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수명은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의 발명 초기에는 순수한 은-요오드(pure silver iodide)로 만든 감광판이 빛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출이 필요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초상 사진은 시도되지 않고 자연풍경이나 건축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 은판에 담겼다.

미국에서는 뉴욕 대학의 교수 John W. Draper가 1839년 가을에 처음으로 인물 초상을 Daguerreotype Plate에 담았다. 그가 초상사진을 처음 시도할 때, 초상사진 인물인 드레이퍼의 조수는 그의 얼굴에 분가루를 칠하고 태양광 아래서 반시간 동안이나 카메라 앞에 앉았다. 당시에 초상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요즘 라스베가스나 뉴올리언즈 같은 관광지 골목에서 볼 수 있는 행위 예술가, 하얗게 화장한 얼굴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Artist 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야 했다.

주기율표에서의 할로겐 원소인 Bromine과 Chlorine을 요오드와 함께 사용하여 Daguerreotype Plate의 감도가 증가되고, 오스트리아 Vienna에서 페츠발(Petzbal)교수가 이전의 슈발리에(Chevalier)렌즈보다 16배나 큰 Large Aperture의 Portrait Lens를 1840년에 개발하여, 이제 1초 이내에 사진을 얻게 되면서 초상사진은 성공을 거두었다. 곧 이어서, 흑백사진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의 상업적 사진가들은 다게레오타입 사진에 색칠을 하기 시작했다. 1840년대 초에 염료가루, 금, 물감 등을 사용하여 여인들의 뺨이나 얼굴에는 예쁜 색이 입혀졌다. 이런 Coloring이 상업화되기도했지만 Colored Daguerreotype은 별로 인정 받지 못했다. Coloring을 미술적으로 신중하게 하지 않고 촌스럽게 하기 때문에 많은 항의가 있었던 것 같다.

어릴 때, 나도 흑백사진의 얼굴에 주황색 염료를 칠해 본 경험이 있다. 독자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1960년대나 1970년대에 그런 색칠을 해보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게레오타입 사진의 Coloring은 개량이 아니므로 다게레오타입 사진이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았다. 미국이나 유럽에 Antique으로 남아 있는 여인들의 옛 Daguerreotype Portrait를 보면 볼에 생기가 돌도록 미술적으로 예쁘게 색칠된게 많다. 약 170년 전의 금속성 흑백사진이지만 불이 불그스름하게 색칠된 예쁜 여인들의 초상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내 영혼이 그곳에 빨려 들어간다.

나는 붓으로 그린 Oil Portrait에 못지않은 깊은 아름다움을 이런 흑백 사진에서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의 영속성을 볼 수 있다.



/ 사람, 사람들 /

태양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한다

김권식 박사 (공대 61/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EVS, Inc 대표)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EVS, Inc.'의 사장이며 2010 MEDA (Metropolitan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올해의 기업인 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한인 기업가이자 서울대 동문 김권식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박사의 어린시절부터 유학생활, 그리고 EVS 기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이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작은 시골마을의 농사꾼의 8 남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2학년때 625가 터져 우리가족은 걸어서 피난을 갔다. 처음으로 배고픔을 겪었다.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늘 배가 고팠다. 전쟁 중 아이들에게 비행기는 더이상 신나는 볼거리가 아니었다. 터지지 않은 폭탄이 묻힌 곳에서 놀다가 팔과 다리를 잃은 아이들을 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금산에서 자리를 잡은 우리는 아버지의 인삼사업이 성공하자 부잣집 아들 소리를 듣기도 했다. 정식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늘 조건 없이 남을 돕는 아버지의 '이타적인 심성'이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의 회생으로 우리 형제는 대부분 대학교육을 받았고 나 또한 유학길에 올라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서울대에 입학한 계기는

1960년대는 공대생 전성시대였다. 경

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엔지니어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공업 부흥과 함께 서울대 화학공학과와 인기가 대단했다. 나는 조선항공학과에 지원했다. 합격한 날 기쁜마음을 주체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와 거리를 마구 쏘다닌 기억이 난다. 나는 대학 2학년때 항공학과를 택했다. 장교가 되어 공군사관학교의 교관이 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친구의 귀농 소식에 그의 초연한 삶이 좋아보여 버섯 농사를 하며 시골생활의 낭만적인 꿈에 부풀기도 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학업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결국 이 '방황의 공백' 때문에 장교가 될 수 없었다.

■미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군대시절 내가 있던 백령도 부대에서는 경제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중학교 과정의 신우학원을 운영했다.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곳에서 나눔의

행복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곳이 내 미국 유학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수 있는 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깨닫고 삶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제대 1년전 부터 유학 준비를 했다. 제대 후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으로부터 장학금을 줄테니 항공학과 석사과정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모님이 큰 조력자가 되셨다는데

나의 20대는 아내와의 이야기를 빼면 그려질수 없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좋아했던 것 같다. 노트 한가득 빼곡하게 아내의 이름 '황성숙'을 썼다. 중 3때 처음 만난 내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 아내와 1969년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까지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아내는 솔로몬 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집안일이나 회사 일이나 늘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편이다. 아내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33년간 회사의 어카운팅 매니저로 일해 주었

다. 회사가 힘들었을때 자신의 월급을 전부 회사에 바쳐 회사를 살리는데 썼다. 최근에 그 월급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데 아내는 그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한국 유학생을 돕는데 기부했다. 아내는 아주 뛰어난 조력자다. 남편으로서 나는 그녀가 자랑스럽다. 손자들과 놀아주며 할아버지 할머니로 시간을 보내는 요즘,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매일 깊어진다.

■EVS를 설립한 계기는

미네소타 생활 2년만에 변화가 찾아왔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항공학과 장학금이 중단됐다. 그래서 장학금을 보장해주는 토목공학과로 전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렇게 네브래스카주 정부 천연자원원 부서에 일을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공무원 생활은 '참을수 없는 무료함'의 연속이었다. 결국 5년만에 미네소타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지인의 회사 '엔바이로 사이언스(EnviroScience)'의 파트너로 일하게 되었다. 몇년

후 나는 이 회사를 완전 인수를 하게 되었다. 안정보다 '모험'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늘 순조롭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회사 운영 25년만에 적자가 누적되어 매우 힘들었다. 3년에 걸쳐 100만불 이상을 손해봤다. 직원들 월급격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401k연금을 갚으며 아들 대학자금, 모게지를 모두 뺐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백만 불을 회사에 넣고 위기를 빠져나왔다. 몇년 후 회사이름은 EVS로 바꾸고 회사의 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했다. 나는 친환경 에너지에 마음이 끌렸고 풍력 발전사업에 뛰어어들었다.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태양광 에너지로의 확장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했다. 나는 EVS의 성장과 함께 '태양을 꿈꾸는 사람'이 된 것이다.

현재 EVS는 미국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탄탄한 태양광 에너지 중소기업으로 평가받는다. EVS는 2017년 기록적인 매출액 신장을 달성했고 회사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손수익의 반을 무조건 직원들의 보너스로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사회산업 재단 'EVS CARES'를 발족하는 기금으로 썼다. 드디어 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본격적인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행복하고 뿌듯했다.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행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분명 아니다. 회사가 힘들어 직원들의 월급을 고민할 때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헤밍웨이 가 말한 것 처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지'를 알게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때이다. 아내도 요즘 수십년째 써 온 낡은 가구를 바꾸고 싶는데 이제는 죄책감이 들어 못바꾸겠다고 한다.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간다. 나는 요즘 손자녀들과 놀 때 행복하다.

최근에 아내와 미네소타 대학 수목원에 열마를 기부하고 벤치를 받았다. 나와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벤치에서 먼 훗날 우리 손주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와 놀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 형제, 친구, 이웃 합창단 등 내가 참여한 단체에서 만난 그들과 어울리며 내가 그들에게 뭔가 쓰임이 있다고 느낄때 나는 행복하다.

■아들을 입양하신 계기는

피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양한 나의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앤디에게 평생 친구처럼 지낼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은 아내의 뜻에따라 결정했다. 9개월된 피터를 보는 순간 "내가 꼭 키워야겠다"고 아내가 흥분할 정도로 피터는 정말 귀여운 예쁜 아기였다. 앤디 역시 8살 차이나는 동생을 얻고다니며 다른사람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예뻐했다. 현재 HPE회사에서 IT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만 날 날아 운동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한다. 성격이 조용한 건 아내와 닮았다. 아내는 가끔 피터의 어린시절 사진을 보여 말한다 "피터를 키우

면서 후회되는 것 딱 하나예요. 피터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 알았으면 말도 한명 입양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난 작년 앤디와 똑같이 피터에게 테슬러를 선물했다. 피터를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다.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나는 30년 넘게 로타리안(Rotarian)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 기회를 누려왔다. 로타리 클럽은 평화증진,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퇴치, 깨끗한 물 공급, 교육지원 등의 분야에서 노력을 펼쳐 온 역사깊은 봉사단체이다. 음악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다. 나는 엔지니어링 전공자이지만 내가 번 돈으로 음악을 후원하는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탄자니아 비영리단체 ETI(Educated Tanzania, Inc)와의 만남에서 절망의 땅에 대학을 세우려는 그들의 노력에 625를 겪은 나의 과거를 떠올렸고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물질적인 빈곤이 정신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까지 초래하는 것을 볼 때 두렵고 슬프다. 그 불가피한 연결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 뿐이라고 굳게 믿는다.

한사람의 꿈이 현실로 바뀌는 기적을 지켜보는 것 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다. 그 기적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과 그 도우려는 사람을 '돕는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서울대 동문과 후배들에 하고싶은 말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이런 와중에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과 국민성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방역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의료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능력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특별히 이 중에는 분명 서울대 출신의 동문들도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서울대 출신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글로벌 리더십을 펼쳐 주길 바란다.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이란 개념이 있다.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말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 생활을 겪은 미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그는 언젠가 석방될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면서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더 큰 위험에 대비하며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강력한 적과 싸우고 있지만 그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의 여러분들의 시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동문, 후배 여러분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는 여러 후배님들의 몫이다.



◀손주들과 함께
▼자서전 '태양을 꿈꾸는 사람 미네소타 김권식'



김권식 박사가 백령도 군 복무시절 야학(신우학원) 교사로 직접 가르쳤던 학생들을 미네소타로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열린 EVS 후원 음악회에서 피아노 독주자분들과 학장님 부부와 함께.

김권식(Dennis Kim) 박사

· 서울대 항공학과 졸업
·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항공학 석사
· 미네소타 대학 (University of Minnesota) 토목공학 박사
· 현 EVS, Inc. 사장(President)

· Educate Tanzania, Inc. (ETD) 기업 파트너 특별 공로상 (2018) 사회사업 재단 'EVS CARES' 발족 (2017) MEDA (Metropolitan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선정 올해의 기업인상 (2010년) Ame Carlson 주지사가 임명한 미네소타 경쟁력 태스크 포스 대표 (1996-- 1999) 백악

관 회의 중소기업 대표 (1994) · 미네소타주 경제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1993년 - 1997년) · 미네소타 주지사 대한민국 방문단 위원 (2011년). 미니애폴리스-세인트 폴 비즈니스 저널 선정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리더" (2004) 재미 환경전문가 협회 회장 (2002-2004) 재미 과학자 협회 최고위원 및 감사 (1998년 -2001년) 재미 과학자 협회 미네소타 지부회장 (1984년, 2004년) · 미네소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이사장 (2005 - 2007) * 미네소타 코랄 이사회 멤버 (2012 - 현재) 홈킨스 로터리 클럽 회장 홈킨스 및 미네 롬카 지역 120개 로터리 클럽 (1995-1996 로터리 교환 학생 프로그램 담당 위원, 로터리 지구 5950/5960 (2000- 현재)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2010-2016)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첫째아들 앤디와



이내원(사대 58)

충무공께서는 1545년 음력 3월 8일, 양력 4월 28일에 태어 나셨으니 올해로 탄생 475주년이 된다. 1598년 겨울, 그 참혹했던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전승으로 마감하시며 순국 하셨지만 귀중한 친필 기록인 7년 일기와 공식 전황 보고서인 임진장초, 그리고 개인 편지 모음인 시간첩을 남기시어 이순신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이용 분야는 세 갈래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가 역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이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침략국 일본뿐 아니라 원군으로 참전했던 명나라까지 동양 3국이 관여한 국제 대전으로 수백만의 인명 손실이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과거 지향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전쟁 기록이므로 군사학적 가치를 지니며 해군 사관학교의 이순신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5대 정신을 교육하고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 *창의로 개척하는 정신,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만 그 교육대상이 사관 생도에 국한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는 인생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다. 이 분야는 이순신 미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로 그 논리적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현대 세계 선진국이 채택한 국민 교육 기초는 전인 교육(全人敎育)으로 그 요지는 민주 시민으로서 두루 부족함이 없는 완성형 인격체를 양성함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순신 연구자들이 떠나 없이 감탄하며 공감하는 바는 흠 잡을데 없이 지극히 높은 인격적 완성도를 이룩하신 공의 정신과 인성이다. 바로 이순신 자신이 이상적인 실천적 인생 모델이라는 뜻 이다. 필자는 스무해 이순신 공부 끝에 학생 교육용 유튜브 강연집 '이순신 생생 자료 강연'을 내면서 이순신을 '칼을 든 성자이며 조선의 민주주의자' 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격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국방의 책임상 무기를 잡았으며, 프랑스 혁명보다 200년 앞서 백성을 나라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애민사상을 지녔다는 뜻이다.

이순신의 제목없는 시 한편에 나타난 공의 마음씀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제시

北來消息杳無因

아득하다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 기고문 /

충무공 탄생 475 주년을 맞아

皆髮孤臣恨不辰

외론 신하 때 못нат 것 한이로구나

袖裡有韜摧勁敵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병법 있건만

胸中無策濟生民

가슴 속엔 백성 건질 방책이 없네

乾坤點點霧凝甲

천지는 감감한데 갑옷엔 서리 영키고

關海腥腥血涸塵

산과 바다 비린 피가 티끌 적시네

待得華陽歸馬後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 보낸 뒤

幅巾還作枕溪人

복근 쓴 처사 되어 살아 가리라
-이은상 역

이와 같은 이순신 정신 인생 교육은 해외 한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정신 인성은 물론 한인 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까지 심어 줄 수 있는 아주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 확장성 또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순신 미주 교육에서는 2018년에 이순신 글 쓰기를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여 태국 치앙마이 한국학교 10 학년 고경현 학생에게 최고 상을 수여하고 다음해 여름 미국 일본 멕시코 한국학교 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여수 이순신 캠프에 다녀 왔고, 2019년에는 남부 뉴저지 한국학교 노종현 학생이 최고상을, 멕시코 한국학교 문시현 학생이 동상을, 몬트리올 한국학교 김예록 학생이 초급인 옥포상을 받았고 그 연계로 올 여름은 충무공께서 순국하신 노랑해전의 섬 남해도에서 이순신 캠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집단 담계 지극히 위대한 충무공 이순신을 세계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모셔 내는 운동에 여러 동문님들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연간 \$100로 우리의 귀중한 가치인 이순신 정신 인성교육을 세계에 씨 뿌리실 수 있습니다. E-mail:naewonlee@yahoo.com



박평일 (농대 69)

/ 박평일의 삶며 생각하며 /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일을 하고 싶다'고

-프레드리히 니체

'오해는 이해 이전의 문제이고,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더 용감하다.' 일생을 살아가며 내가 배운 지혜 중 하나다. 천재들을 위험한 돌연변이들이다. 그래서 인류는 그들에게 '천재'라는 훈장을 달아준다. 폴란드 천재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기독교 교리인 '천동설'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천동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는 교묘한 양비론으로 간신히 단두대는 피해갈 수 있었다.

현대 문리학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만 해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학자들은 겨우 12명 정도였던 걸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심리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명저 '꿈을 해석'을 발간했을 때는 심리학계로부터 미친놈 취급을 받고 그 책이 전혀 팔리지 않았었다.

그림 한 장이 천문학적인 8천만불 이상으로 매매되고 있는 네덜란드 인상파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떠한가?

장신장예인 고흐는 평생 자신의 작품을 팔아보지도 못하고 굶주림의 나락을 헤매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매독으로 사망했다. 어찌 그뿐만이겠는가? 그리스 천재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쏘다니며 철없이 "네 자신을 알라!"고 외치다가 당대 기독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시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만약 "솔직히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고백을 보다 일찍 했었다라면 코페르니쿠스 처럼 목숨만은 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천재들의 삶은 이처럼 순탄치가 않다.

인류 역사상 '천재'라는 훈장을 달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프레드리히 니체' 만큼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던 천재는 없었으리라.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의 대표작 '짜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한 시장통에서의 대화, "저 늙은 성자는 숲 속에서 살고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때문에,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완전 찍

혀, '무신론자', '사탄', '정신병자' 등 온갖 비판과 비난들을 아작까지 받아오고 있다. 나도 이 시를 읽기전까지만 해도 니체에 대한 그런 무지의 대열에 끼었던 군중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대학 일학년 때 니체의 '초인론(위버멘쉬)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다. '영웅주의', '대망론'에 심취해 있었던 한창 젊은 나이에 '초인'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비극의 탄생',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짜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 세계문학전집에 나온 니체의 저서들은 밤을 새우며 닥치는대로 읽었다. 그러나 읽고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책 내용들을 전혀

명한 셈이다. 니체는 이렇게 주장한다. "예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자, 최후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없어도 좋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것은 비이성적 광기로부터 비롯되었다." "대지의 뜻에 충실하라." "생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이 세계는 힘의 의지다." "새겨들여라, 형제들이여!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가 생겨난 이래 지금껏 스스로에 대한 비평을 수용한 권위는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원숭이들아, 보라. 인간들은 권력을 위하여, 권력의 지렛대로 금력을 추구한다. 이들 모두는 높은 권

역사상 가장 당대 폄박 받았던 천재 '니체'

니체는 위대한 시인이자 위대한 예술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 신앙인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한글번역의 저질성을 탓하기도 하고, 나의 지적 수준을 자책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번역이나 나의 지적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니체가 제 5의 성경 복음서가 될거라고 큰소리를 치며 내 놓았던 '짜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었던 당대의 한 최고 철학자도 책을 읽고나서 '니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나는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혹평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니체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나는 이 책을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100년 후의 인류를 위해서 썼다'며 오만을 떨었다.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니체'?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인 수준의 천재', '초인(위버멘쉬)' "신은 죽었다."는 말 정도다. 그렇게 무식한 주제에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신이 죽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통해서 니체를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는 말을 스스로 증

좌를 원한다. 그러나 권좌 뒤에는 똥이 있다." "주거를 제공하고, 오락을 제공하고, 음악과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이 주어졌어도 인간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불만이 많다. 인간들은 압도적인 힘을 원하는 존재다." "인간들은 사랑에 친숙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짜라투스 트라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 짜라투스 트라는 도덕이라는 오류를 최초로 고안해 낸 인간이다. 그렇기에 그는 도덕의 오류도 최초로 인지한 인간임에 틀림없다. 정적을 통한 자기 극복...이것이 짜라투스 트라 이름의 의미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이라는 니체의 시를 읽으며 얻은 니체에 대한 인상은 '니체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섭리를 한 눈에 꿰뚫어보고, 그 진실을 이해하고 있는 위대한 시인이자, 위대한 예술가이며,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다.

그는 종의 기원을 쓴 다윈처럼 우주의 진화 법칙을 약육강식의 잔인한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과학자가 아니었으며, 헤겔처럼 인류의 역사를 변증

법적 논리로 해석하는 철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도 아니었다. 또 파르트리처럼 인간관계를 "타인은 지옥이다."고 말할 정도의 염세적인 철학자는 아니었다. 더더구나 목사의 아들인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그가 죽었다고 비난했던 신은 하늘 위에 존재하고 있는 신의 우상이었으며, 성전 안과 밖이 낮과 밤처럼 다른 이중적 그시대 종교의 모습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그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이었다. 그가 바랬던 종교의 모습은 예수의 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이 이 땅위에 공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서로에게 감사해 하며 서로 나누고, 탐욕과 예고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고,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하며,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신과 인간들이 별거벗은 채 사랑으로 살아가는 종교였다.

그가 추구했던 초인(위버멘쉬) 또한 탐욕과 예고의 권력을 휘두르며 하늘을 나르고, 물위를 걷는 신비한 초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깨어난 자유인이다. 위버멘쉬는 땅의 순리에 순응하며 홀로 황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자다. 그는 어떠한 관념이나, 사상, 권위, 도덕,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예고에도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을 호령하는 황제다. 한국의 시인 홍사옹이 읊었던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그 왕이 바로 위버멘쉬(초인)이다. 위버멘쉬(초인)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공존과 상호 상생을 위한 힘의 조화적 갈등 관계다. 니체에게 '나'는 지옥이 아니라 상호 행복을 위한 '천국'의 일부다. 그러면에서 위버멘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예술인이고, 시인이다.

니체를 읽으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니체가 만약 이천 오백년 전 쯤에 중국 땅에는 이미 그가 그토록 꿈꾸고 있던 초인(위버멘쉬)의 삶을 살고갔던 노자를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무식한 오만의 말을 남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100년만 기다려보라. 아마도 그 때에는 인간을 탁월하게 이해하는 천재들이 나타나 이 니체의 이름을 무덤 속에서 파낼 것이다."

이글이 니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또 하나의 무식한 용감기 아니길 간절히 빌며...

/ 관악춘추 /

女小男大 였던 40년 전 서울대



김창균(경제 80/논설위원)

서울대 19학번 정학생 선발 면접에 참가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문과계열 단과대학별 성적 최우수자들이 후보였는데 여학생들이 압도적 다수였다. 차마 숫자를 밝히기 곤란할 정도로 남학생들은 지리멸렬이었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이 약진하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필자가 입학한 1980년 학번의 법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500명 신입생 중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문이과 전체 신입생 3,000여 명중 여학생 숫자가 100명이나 됐을까 싶다. 관악캠퍼스에서 여학생이 눈에 띄는 경우가 드물 정도였다.

그래서 그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생물학적으로 학업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다.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면 무조건 서울대에 간다, 서울대 학생 중 남자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3단 논법에 의존한 결론이었다. "여자치고는 공부 잘한다"라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성차별적 표현이 당시는 자연스럽게 통용됐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능력이 우수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학생들의 학업 능력만 차별적으로 증진되는 돌연변이 현상이라도 발생했다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학업능력의 남녀 우위가 뒤바뀐 원인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있었을 것이다. 고등학생 때 필자 동년배중 대학진학 비율이 절반 정도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다. 대학 입시문이 좁은 탓도 있지만 애초에 대학 문을 두드릴 만한 경제 형편이 안되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당시 적이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3단 논법에 의존한 결론이었다. "여자치고는 공부 잘한다"라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성차별적 표현이 당시는 자연스럽게 통용됐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능력이 우수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기가 어렵다고 여대 진학을 강권하는 집안들도 있었다.

1980년대 서울대에 여학생이 드물었던 데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래 여학생들이 얼마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기는 여자가 못 따라오지"라고 자만했었던 셈이다. 만일 지금의 사회환경이 40년 전에 일찌감치 찾아왔다면 필자의 처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절반이 넘는 여학생 동기들이 불비는 캠퍼스에서 좀더 '화사한' 학창생활을 즐겼거나 머리 좋은 여학생들에게 성적이 밀려 다른 대학교 졸업생이 됐거나.

<서울대 관악춘추 칼럼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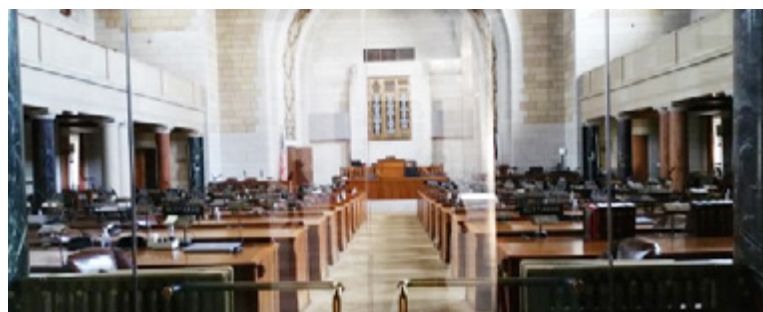
/ 여행기 /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Yellow Stone Nation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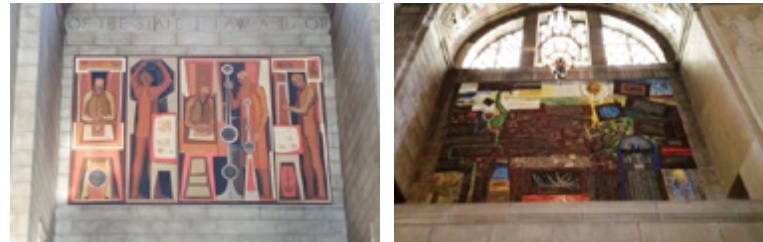
시카고에서 출발하여 옐로우스톤을 방문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왕복 4800 km가 넘는 여정이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아이다오주를 거쳐서 도착하고 돌아오는 길은 좀 더 북쪽으로 사우스 다코다 주를 거쳐서 돌아온다. 줄곧 달리다 네브래스카 주도 링컨에서 내려 시청사를 둘러 봤다. 인구 2백만이 안되는 주인데 미국인도 웬만해서 이 곳에 올 기회가 없다. 그만큼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특별한 산업이나 관광지가 없다. 그러니 옐로우스톤을 오가는 길에 한번씩 들를 뿐 다들 지나치고 만다.



신규천 (상대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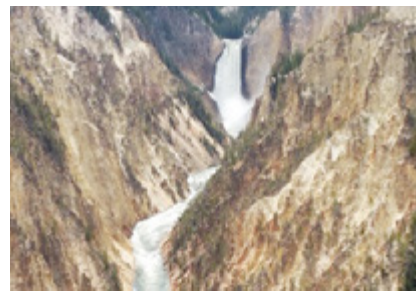
다음 날도 하루종일 운전했다. 친구들이 한국에는 하루종일 운전할 곳이 없어서 감을 잡기 힘들다. 옐로우스톤을 가려면 중간에 그레이트 티톤 국립공원을 지나야 하는데 옐로우스톤과는 또다른 자연의 세계가 있다. 호수를 파노라마와 동영상에 담아 보았다.



시의회실 한국 보다는 검소한 시설이었으나 시 규모 보단 제법 시설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양의 시청사 시설을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하고 시민을 위한 장식을 많이 한다. 여기서 청사 내부 벽을 보니 많은 내용이 있었다. 조순 교수님이 서울시장(1995년 ~ 98년)을 할 때 서울 시청을 들른 적이 있었는데 시청 내부 장식이 그냥 업무 빌딩이지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다.



옐로우스톤에 다 와서 눈 덮힌 설산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다시 한 것을 했다. 시카고에서 만 이틀 후 저녁에 옐로우스톤에 도착했다.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내려서 보는데 지명보다는 경치를 보면 '아! 감탄사가 절로 난다.



하루종일 차를 몰아 여덟 팔자를 그리면서 운데를 돌아다녔는데도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 저녁놀은 예외가 아니다.



Old Faithful 이란 곳은 볼 것이 많다. 화산 작용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



1988년에 방문했을 때 화재 때문에 공원 전체의 1/4이 타버렸다고 했다. 실제 화재난 곳을 지날 때는 타다남은 일부 나무만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었다. 그땐 부지런을 떨어서 사전 예약한 덕분에 공원 안에서 하루 텐트를 치고 잘 수가 있었는데 아침에 산 속에서 일어나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며 즐거워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2018년도에도 일부 화재가 있었다고 하니 30년만에 또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옐로우스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이저 (Geyser: 간헐천)다. 아이슬란드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름은 그 쪽이 원조라고 한다. 정기적으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려면 꽤 기다려야 한다.

/ 대중문화로 보는 세상 /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



오(조)봉완 (법대 53)

이 있어, 이정호 감독은 두 사람의 “케미 (chemistry)”가 좋아 일 하기가 쉬웠다 했다.

이야기 줄거리도 흥미 있다.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불가능한 러브스토리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상의 힘든 연애 이야기다.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을 깨닫고 리정혁을 단념한다.

이 드라마는 비판을 벗어 날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시기에 방영된 데다가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발랄한 색채는 북한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 현실을 무관하고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재벌 상속녀 여주인공, 시나리오가 시트

다는 것을 뉘우쳤다.

수십 년을 두고 흡수 한 북한에 대한 최악의 정보와 홍보가 “북한은 사람이 못 살 곳”이라는 관념을 나의 머리 속 깊이 심어준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사람들도 나와 동족이라는 것을 새로 깨달았다. 사투리가 있고 가끔 못 알아 듣는 용어가 있어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말 을 하고, 한글을 쓴다는 것, 영특하고지나치게 예의 차리고, 후하고, 먹기 좋아 하고, 잘 웃고, 노래 좋아 하는 것, 여자들은 차림 차림에 애쓰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동족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했다.

또한, 윤세리 캐릭터를 곤란한 현실을 무시하고, 철부지 한 행동을 하게 묘사한 것이 싫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족 여성들은 개인적으로는 강하였으나, 사회제도적으로 차별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그러나, 현 한국의 현황은 “me too” 운동 발생 이후에 더 강한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딸은 당당하게 길러라”는 사상이 현 한국 사회에 들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2차 대전 직후에 거진 1300년이나 단일 국가의 영토였던 우리 반도가 하루 아침에 아무 예고도 없이 분단되어, 반대정치 제도로써 처해져, 남북이 거의 다른 나라로 바뀐지 75년이 되었다. 국제세력 정치에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 최악의 비극이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 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프게 느낀다.

평통에 새로 가입이 된 회원으로, 북한에도 우리 동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민족의 100년 후의 미래를 생각 하면 통일이 돼야 하다고 새삼스레 느꼈다.

통일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 이어 어서 오라



중앙일보 시카고판 (2/29-3/1/2020) 보도에 의하면, 세계의 190개 나라에서 상영되었다 한다. 이로써 3가지 연에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최우수 위치를 장악 했다. 영화 “기생충”의 4개의 오스카상 과 BTS의 그랜드센드럴스테이션에서의 공연, 그들의 미국과 영국에서 빌보드상 1위 를 말한다.

이 드라마가 성공한 것은 여러가지 요소가 조정/융합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연극에는 무엇보다 각본이 좋아야 한다. 2007년부터 성공작을 연속 창작한 극본작가 박지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칼잡이 오수정(2007), 내조의 여왕 (2009), 역전의 여왕(2011), 엉클째 굴러온 당신(2012)이 있었다. 2013~2014년의 ‘별에서 온 그대’는 김수현/전지현 주연으로 대성공작 이었다. 계속하여 ‘프로듀서’(2015), ‘푸른 바다의 전설’(2016~2017)을 집필했고, 드디어 ‘사랑의 불시착’에 달했다.

다음 중요 요소로는, 감독이 좋아야 하는데, 23건을 방송한 경험이 풍부한 MBC 드라마국의 이정호 감독이 맡았다. 이상의 두 근본 요소가 있어, 인기 배우 현빈과 손예진의 관심을 살수 있어 그들이 열정을 들여 공연 했다. 이 두 연예인은 2018년에 영화 ‘협상’에서 함께 연출한 일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차례나 열애설이 있었다가 부정한 일

의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현빈 역)의 절대 극비의, 때로는 희극적 이며, 때로는 애절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리정혁의 꾸준한 현실/전지현 주연으로 대성공작 이었다. 계속하여 ‘프로듀서’(2015), ‘푸른 바다의 전설’(2016~2017)을 집필했고, 드디어 ‘사랑의 불시착’에 달했다.

리정혁이 구실을 만들어 남한에 따라왔으나, 두 사람은 다시 이별하게 되어 리정혁이 북한으로 소환된다. 분단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 윤세리는 남한에, 리정혁은 북한에 살게되어, 휴대폰으로 문자 연락을 하다가, 처음에 만났던 곳인 스위스에서 기적 적으로 재회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 리정혁의 전 약혼녀 서단(서지혜 역)은 총을 맞고 죽은 구승준(김정현 역)에 대한 자신의 진심

를 같이 진행 했다는 것에도 일부 시청자는 실망했다 한다. 이상을 다 인정하고 동의 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인은 다른 각도로도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아 아, 여기에도 사람들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자신에게 놀랐다. 다음순간, 반대 생각을 했다. “그럼, 사람이 살지 -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모든 생존의 요소가 구비된 있는 그 큰 공간이 비어 있을까? 75년 전까지 1300년가까히 한나라였던 곳 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가난하고 미개발한 상태이지만,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동네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고, 북한에 대한 나의 편견이 너무 깊었

/ 시집 /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백 순 (법대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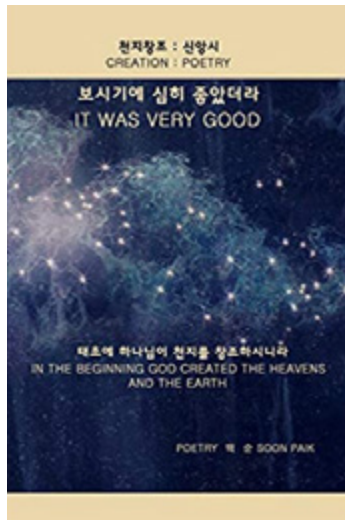
백순 박사(경제학, VA 레스턴 거주)가 최근 한영 신앙시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it was very Good)'를 펴냈다.

지난 2016년 펴낸 '징검다리'를 비롯 '워싱턴 광장에서 시편을 읊으리라'(2015),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은혜의 눈송이를'(2005), '그래도 주님 사랑 넘치면'(1999)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신앙시집이다.

백 박사는 "이번 '천지창조-신앙시집'은 지난 33년간 중앙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 온 신앙인으로서의 신실한 고

백이다. 작품집은 첫째 날(하나님이 이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부터 일곱째 날(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리라)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형상화한 시편들로 채워졌다. 백 박사는 '80여년을 살면서 자연과 사랑, 온갖 살아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것을 깨닫고 주제로 정했다. 수고와 슬픔뿐인 팔십의 연수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류영렬 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백 박사가 한 편의 시집에 담았다. 천지와 만물의 오묘함 그리고 그 안에 때로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



다. 세상이 펼쳐놓은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일, 그 아름다움을 창조의 빛으로 반사시켜 한 편의 글로 지어내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다'라고 평했다.

서울 출신인 백 박사는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경제 대학원을 거쳐 오하이오대와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후 연방 노동부 선임학자로 28년간 근무하다 2016년 은퇴, 워싱턴 버지니아대학교수로 활동 중이며 3권의 평론집도 냈다.

<출처=한국일보>

빛: 어둠을 뚫고 번져 나가는 빛

밤하늘을
현란하게 밝히는
빛은
어디에서 시작

해의 빛
달의 빛
별들의 빛
보이는 모든 빛 어우른 근원의 빛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고
공허(없음)에 존재(있음)를 만들어 내고
흑암(어둠)을 산산이 부서 버리는
빛

모든 것의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창세기 12~3>



김동한 (문리 53)

김홍집은 개화의 선각자로서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후 국왕을 설득해 조선의 개화 개혁을 유도했고, 개화의 일환으로 구미 나라들과 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의 실무자였다. 그가 주도한 갑오개혁은 우리 나라 근대화의 초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조선의 근대화에 전력하다 순직했다. 고종의 아관파천의 무혈 쿠데타를 성사시킨 친러파는 총리대신 김홍집을 참살하고는 군중들에 의해 타살되었다고 국왕에게 거짓 보고하고 허위의 포고문을 내서 그렇게 알려져 왔다.

19세기 중엽 서양의 식민지화 사조가 동아시아로 밀려 닥치자 우리 나라 조선은 성리학의 가르침에 기초한 위정척사(斥邪) 사상이 팽배한 가운데 서양을 오랑캐라 취급하고 서양문물의 도입을 엄히 금했다. 일본은 당시 사무라이 정권인 도쿠가와바쿠후(德川幕府)가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미국의 검은배(黑線), 당시 일본에서 처음 보는 검은 색으로 도장한 증기외운선(蒸氣外輪船)이 나타나자 겁에 질려 문호를 개방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내란이 일어나 도쿠가와 정권이 타도되고 천황(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복고(王政復古)가 일어났고, 새 정권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부국강병의 나라가 됐다.

부강해진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수법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해서 1876년 조선과 수호통상조규(修好通商條規)를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일본에게 심히 유리한 조약이었다. 조선으로서는 국시 이래 처음 경험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세계정세에 어두운 조선은 많은 것을 일본에게 허락했던 것이다. 일본은 이 조규의 제1조에서 조선은 일본과 같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자주국이라 치켜 놓았는데, 이는 앞으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청국의 간섭을 막으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웃음 안의 개구리 격인 조선은 서세동침(西勢東漸)의 국제 정세를 지각(知覺)하고 개화 개혁을 시도하게 됐다. 김홍집(金弘集)은 조선조 제19대 국왕 숙종(肅宗)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친부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5대손인데 그의 가문은 대대로 소론(少論) 계열에 속하였고, 대사헌(大司憲)과 개성유수를 지냈고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된 부친 김영작(金永爵)은 우리 나라 개화사상(開化思想)의 선조 박규수(朴珪壽)와도 뜻을 같이 하고 가까이 지냈다. 충군애국(忠君愛國) 청렴결백(淸廉潔白) 불의불용(不意不宥)이 대대로 내려온 가풍이었

갑오개혁(甲午改革)을 주도한 김홍집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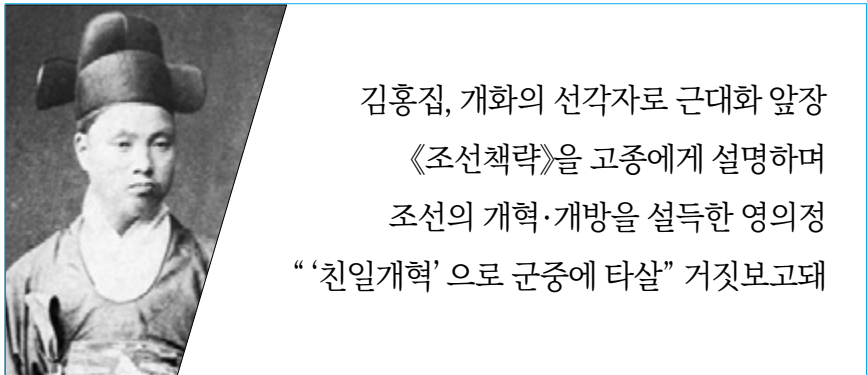
/ 역사칼럼 /

다. 실학자 부친의 영향을 받은 청년 김홍집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서양의 문물(文物)을 소개하는 책인 신서(新書)들을 탐독하고 서구 문물과 청나라의 변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자각(自覺)했다. 1842년 8월 12일(음력 현종 8년 7월 8일)에 출생한 그는 1868년에 경과정시(慶科庭試)의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친상과 이어서 모친상을 당해 귀가하여 5년 간의 거상(居喪)을 하고 1873년에 돌아와, 예조(禮曹) 내의 승문원(承文院)에서 박사(博士)를 시작으로 해서 주로 예조 내에서 근무했다.

경과정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성균관의 제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과거로서 1868년의 경시는 경북군 복원의 준공과 신

슨 책 이언(俚言)을 받아 가지고, 일본 개화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인 불교승(佛教僧) 이동인(李東仁)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동인은 김옥균(金玉均) 등에게 일본의 개화 서적들을 구해 다 주는 등 일본의 개화상을 그들에게 소개한 부산 출신의 불교 개화승(開化僧)이다.

귀국한 김홍집은 국왕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놀라운 개화상을 자세히 보고하고, 가지고 온 책자들을 진상하고 조선의 개화를 간절히 상주(上奏)했다. 고종은 김홍집의 보고에 매료되어 기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밤이 늦도록 일문일답의 보고를 받았다. 밤이 너무 늦었음을 깨달은 고종은 김홍집에게 긴 여행에 고단할 텐데 어서 가서 쉬라 하고 그를 귀가시켰다 한다. 고종은 영의정



김홍집, 개화의 선각자로 근대화 앞장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설명하며
조선의 개혁·개방을 설득한 영의정
“‘친일개혁’으로 군중에 타살” 거짓보고돼

정왕후(神貞王后) 조대비(趙大妃)의 회갑을 기념하는 정시로서 나라의 최고 등용문이 었다. 1875년 흥양현감(興陽縣監, 오늘날의 전라도 고흥군 군수)이 되어 외직으로 나갔는데, 3년간 태수(太守)로 있으면서 선정을 하여 전라감사의 고과(考課)에서 모두 상(上, 오늘 날의 A등급)을 받았다.

1880년 고종은 돈녕도정(敦寧都正,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한 관청의 정삼품 관리)이었던 김홍집을 제2차 수신사(修信使)로 선발해 일본에 파송했다. 그는 60여 명의 사절단을 인솔하고 일본에 갔다. 부산항에서의 무관세 교역의 시정 등 주어진 외교업무는 일본의 무성으로 이루어지 못 했지만 그는 주 일본 청나라 공사 그리고 참찬관(參贊官)과 여러 차례 만나 필담(筆談)하고 개화와 조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러시아의 남침이 불완전 있을 것인데 조선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방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다. 이제 김홍집은 나라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조선의 개화 개혁이 절실했음을 통감했다. 참찬관 황준憲(黃尊憲)이 필담 내용을 정리해서 저술한 책자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畧)과 청나라 개화사상가 쟁관인(鄭觀應)이

에게 대신들과 더불어 그 “조선책략”과 “이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토록 하였는데, 긍정적인 보고가 있자 조심스럽게 개화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조선책략”의 주된 내용은 두만강을 사이로 하고 있는 제정 러시아의 남침이 불완전 있을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친청-결일-련미(親淸-結日-聯美) 즉 청국과 친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내며 미국과 교류하고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고 개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종은 위정척사의 사상 하에서 문호개방에 반대하는 지방 유생들에게 개화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 책자의 목각판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유생들이 그 글 중에 야소(耶蘇, 예수)가 주자(朱子)와 같다는 구절을 트집잡고 김홍집 탄핵의 상소를 거듭 올렸다. 경상도의 이만손(李萬孫)은 만명이 서명한 상소인 만인소를 올려 고종을 난처하게 하자 김홍집은 그 책자 반입의 책임을 지고 관직을 사퇴했다. 수 차례 걸쳐 올린 사직 상소를 고종이 거듭 반려하자 김홍집은 자의로 등청을 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 당시 중국은 밀려 들어오는 서구의 세력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보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특히 면방직공업이 크



■저 서: 국외에서 본 19세기 말의 동아시아와 김홍집

■저 자: 김동한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를 1957년 졸업하고, 국방부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충주비료공장에 입사하여 시운전에 참여하였고, 1961년 도미하여 Univ. of North Carolina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하고 Ph.D. 학위를 받은 후 Wyeth Laboratories에서 신약개발 연구를 하였다. 1986년 포항공과대학 창립에 동참하여 화학과를 시작하고, 2004년 정년퇴임 하였다. 화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생리분자 과학연구센터 소장을 지냈다. 한국 과학기술원립원 명예회원이고,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과 대한화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30편의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13개의 총설, 69편의 미국 특허의 발명자이고, 학술서적 “창약 화학”을 저술했다. 6개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이었다. 대한민국의 훈장 동백장, 이태규 학술상(대한화학회)과 상허대상(학술부문)을 수상했으며, 포항공대 와 중국 연변대학의 명예교수이다. 정년퇴임 후 미국에 돌아와서 역사 공부 특히 조선 근대사 공부를 시작하고 앞에서 소개한 ‘19세기 말의 동아시아와 김홍집’이라는 제의 책을 저술했다.

게 기계화해 과잉으로 생산되는 면직물을 청나라에 수출하였는데, 청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적자를 냈다. 왜냐하면 중국의 차와 도자기 등이 영국에서 인가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외에서 본국외에서 본 19세기 말의 동아시아와 김홍집'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자연·인문학 /

유쾌한 행복론



이태상 (문리 55)

이태상 동문의 '유쾌한 행복론'은 가장 쉽고 간결한 행복 실천법을 제시한다. 신인류 '코스미안'을 창시해 코스미안 시대를 연 이태상 작가의 '유쾌한 행복론'은 존엄보다 존재를, 사상보다 사랑을, 열망보다 열정을, 경쟁보다 경험을, 지식보다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이 동문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코리아 타임즈 기자, 미국 출판사 Prentice-Hall 한국영국 대표를 거쳐 글로벌 신문 코스미안뉴스 회장을 맡고 있다.

■ 행복에도 결이 있다. 유쾌하지 않으면 아ют

'유쾌한 행복론'은 가장 쉽고 간결한 행복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어린이 눈에는 별만 보이고 부처

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듯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이 찾아온다고 한다. 신인류 '코스미안'을 창시해 코스미안 시대를 연 이태상 동문의 '유쾌한 행복론'은 존엄보다 존재를, 사상보다 사랑을, 열망보다 열정을, 경쟁보다 경험을, 지식보다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잘됨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결국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면 그 행운은 돌고 돌아 나에게도 온다고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 이태상 작가는 남들과 똑같은 불어뻘처럼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말한다. 누구를 미워할 때 자욕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천국이며 오늘 이 순간을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이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자욕이라고 한다. 오늘 잘 사는 사람이 내일도 잘 살 수 있듯이 역지로 기다리고 찾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행복은 자연스러운 유쾌함이어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태상 작가가 평생을 두고 실천하고 있

는 행복론을 유쾌하게 풀어 논『유쾌한 행복론』누구나 읽으면 고개가 고덕여지며 술술 읽히는 책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미국에서 세계 사람들과 글로벌 마인드로 자신의 철학적 세계관을 완성해 낸 이태상 작가의 유쾌한 행복론을 통해 우리 삶 속으로 녹아들 지혜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할 권리

행복에는 비법이 따로 없다. 행복의 비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에게 백전노장 이태상 작가가 어디에도 없는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다. 노력하는 즐거움, 예측불허의 미지수, 가능성에 도전하는 스풀과 흥분의 쾌감이야말로 삶의 기쁨이며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태상 작가는 일깨워주고 있다.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남과 비교해서 얻은 행복은 불행의 씨앗일 뿐이다.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스스로 만들



어 가는 것이 유쾌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만들고 실현한다. 여태껏 보아온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행복론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유쾌한 행복론을 설파하는 이태상 작가의 화법은 놀라울 만큼 흡입력이 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실천해온 절대 긍정의 아이콘 이태상 작가의 행복론은 우리에게 비티민 같은 청량함을 준다.

'유쾌한 행복론'은 이태상 작가가 평생 추구해온 삶의 진수를 뽑아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 속에는 작가의 사상과 철학이 오롯이 녹아 있다. 어렵고 까칠한 철학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간결하고 재밌고 쉬운 이야기의 바다가 펼쳐진다.



오렌지 카운티 남쪽 라구나 비치의 Treasure Island Park 석양.



나두섭 (의대 66)

/ 삶과 에세이 /

행복을 느끼려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일까?

이제 은퇴를 한지 벌써 몇년 되었고 취미를 위주로 생활을 하는 중인데 예전부터 해왔던 사진 찍기에 정력을 많이 쏟고 있다. 나는 골프는 치지 않지만 골프채를 신형이 나올때마다 바꾸는 사람들을 보았다. 좋은 것으로 치면 더 잘 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약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고가의 악기를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소리가 확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진 찍는 사람으로 좋은 브랜드가 만든 최고 품질의 사진기, 렌즈를 갖고자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으로라도 한번 갖고 찍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 내가 원하는 사양을 다 갖춘 사진기가 출품하였다. 가격은 좀 있었지만 꿈에도 원하던 것이어서 주문 하였다. 구입하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내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고 주로 손으로 만드는 회사에 주문자가 많아서 3달이 지나서야 내손에 들어올 수 있었다. 기라리는 내내 가슴은 설레었고 지금도 이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가슴은 미어진다. 이모든 것이 이것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앞으

꿈에 그리던 카메라를 손에 넣는 순간 가슴뛰는 행복감
마음 맞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 할 수

로 얼마나 이런 감정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기를 산 돈은 확실히 나에게 행복감도 가져다 주었다.

행복을 느낄수 있는 하나의 쉬운 방법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어야

하고 신경도 쓰인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 눈을 마주 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사람의 세계를 엿볼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해서 공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서로간의 감정이 오갈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웃음꽃이 피기도 한다. 그러면 세

오렌지 카운티 남쪽에 라구나 비치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중심부에 바닷쪽으로 해변이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약 3 마일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Treasure Island Park 이 나온다. 걸을 수 있는 작은 길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모래사장도 나온다. 정열적인 빨간 꽃들도 있고 선인장 계통의 여러가지 식물들이 있다. 이곳을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자주 가는 곳이고 이곳의 석양은 젊은 연인들의 사랑처럼 아름답다. 이글과 함께 이곳의 석양 사진을 첨부 하였다. 혼자 가도 좋겠지만 부부나 친구들과 같이가면 더욱 좋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곳도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얼마전에 한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덕분에 몇몇 동기 친구들과 같이 모일 수 있었다. 학교다닐때는 사실 흔했던 것이 같이 공부하던 동급생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느낌이 다르다. 철모르던 때 같이 부딪치

며 지냈는데 이제 만나니 소중하게 느껴진다. 어릴때 같이 지냈다는 것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하찮은 말을 해도 그대로 좋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주니 즐겁지 아니한가' 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아내가 있는 남자 4명이 죽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것도 범죄 행위 도중 경찰에 쫓기다가. 더구나 조폭의 돈을 훔치다가. 훔친 돈도 무려 2백만 불이라면. 그 2백만 불도 불에 타 버렸다면. 남편들도 함께 그 불에 다 타 죽었다면. 죽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내들이 조폭에게서 돈을 돌려 달라는 협박을 받는다. 선량한 시민인 줄 알았던 남편이 직업 범죄인이었고, 살던 좋은 아파트가 다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것이더라면. 1달 내로 아파트를 팔아서 조폭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러면 보통의 아내들은 미쳐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 미망인은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었고, 다른 미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빼앗기고, 또 다른 미망인은 생활고를 이겨 내기 위하여 슈가 베이비 (sugar baby)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미망인은 4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고, 이



류정순(가정 69)

/ 문학읽기 /

라보엠과 렌트

푸치니는 라보엠에서 주인공 시인 루돌프, 철학자 콜리네, 화가 마르첼로의 그림에 미의식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사랑 밖에 난 몰라"식으로 오페라를 만들었다. 특히 그 시절은 고전음악의 기본적 구조로 이루어졌던 조성체계를 무너뜨린 무조음악과 12음계가 도입되고, 새로운 현대오페라가 등장하던 19세기 말이었으나, 푸치니는 라보엠을 전통적인 벨칸토 아리아에 베리스모적인 극이 가미된 가벼운 오페라로 만들었다.

그에 비하여 록 뮤지컬 장르이지만 조나단 라슨은 렌트에 깊은 미학적 성찰과 사회의식과 같은 무거운 주제의식을 담았다. 렌트에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뒷골목에서 소외된 낙오자의 모습을 한 젊은 예술가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절망 및 분노를 품고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사랑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라보엠에는 진정한 낭만적 사랑만 묘사된 데 비하여, 렌트에는 '사랑이, 마약, 에이즈, 동성애와 죽음의 냄새로 범벅이 된 불안한 젊은이들이 연인의 마음속에 세입자처럼 불안정하게 머무는 것'으로 표현된다. 극의 바닥에 현대인의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와 근원적 고

독과 허무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라보엠에는 주인공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긴 하지만 합법적인 임차인이고, 돈이 생기면 임대료를 낼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자신들의 무능 탓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들의 작품이 훌륭하지만 세상이 그 진가를 평가 못해서 가난한지, 실력 재능이 모자라서 가난할지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권리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미미가 안타까울 뿐 의료기본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 그에 비하여 렌트의 주인공들은 불법점유한 집에서 살면서 영화 시나리오와 로큰롤 포스터에 불을 붙인 드림통을 창밖으로 던지고, 생존권(주거권 및 난방권)의 사회적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임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푸치니가 깊이 있게 인간본성과 사회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19세기 말 유럽 지성인이 가졌던 미의식, 시대정신과 사회의식을 나타내지 않았고, 음악이 구석이긴 하지만, 라보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오페라인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박준창 (인문 79)



미망인들(Widows)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아내가 있는 남자 4명이 죽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것도 범죄 행위 도중 경찰에 쫓기다가. 더구나 조폭의 돈을 훔치다가. 훔친 돈도 무려 2백만 불이라면. 그 2백만 불도 불에 타 버렸다면. 남편들도 함께 그 불에 다 타 죽었다면. 죽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내들이 조폭에게서 돈을 돌려 달라는 협박을 받는다. 선량한 시민인 줄 알았던 남편이 직업 범죄인이었고, 살던 좋은 아파트가 다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것이더라면. 1달 내로 아파트를 팔아서 조폭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러면 보통의 아내들은 미쳐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 미망인은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었고, 다른 미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빼앗기고, 또 다른 미망인은 생활고를 이겨 내기 위하여 슈가 베이비 (sugar baby)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미망인은 4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고, 이

들의 각기 상황이 어떻게 간에 공통점은 조폭 돈을 훔친 남편을 두었던 죄로. 돈이 아니면 묵음으로 빛 아닌 빛을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흑인 조폭 우두머리는 좀 더 편하게 돈을 벌겠다며 시카고의 시 의회 (ward) 의원 (alderman)선거에 나간다. 건축업자 등에게 계약을 주면서 킥백이 나 온갖 이권을 다 챙기면 마약 파는 것보다 더 낫다. 선거전의 상대는 전통적으로 이 구역을 지켜 온 구인 내 나는 시의원 집안의 백인 잭 멀리건 (Collin Farrell 분).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 받았는데. 선거구 내 지하철 사업 자금에서 5백만 불의 돈을 착복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드러내 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나 암암리에 모든 이권을 불법적으로 챙기는 자나 도긴개긴.

주인공 베로니카 (Viola Davis 분)는 불에 타 죽은 범죄 4인조의 우두머리인 백인



해리(Liam Neeson 분)와 함께 살던 흑인으로, 교사 노조 대표이다. 베로니카는 죽은 해리의 공책에서 시카고 어딘가에 5백만 불이 있고 이 돈을 해리가 훔치기로 계획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정보를 조폭에게 팔면 안전할 수도 있으려만, 베로니카는 대단히 위험한 계획을 세운다. 다른 미망인들과 함께 이 5백만 불을 훔치자는 것. 2백만 불은 조폭에게 갚고, 3백만 불은 각자 나누어 가지자는 것. 그러나 4번째 미망인은 합류를 거부한다. 왜 거부할까? 단순히 두려워서일까? 그 이유를 베로니카는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또

한 충격적이다... (아직 못 보신 독자 여러분들의 영화 보는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해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하지하기로 하겠다).

그들은 5백만 불이 있는 곳을 알아 내는데 바로 잭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다. 그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준비하고, 합류하지 않은 4번째 미망인을 대신하여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는 다른 여자를 응원한다. 뱀 운전자로 쓰게. 그리고 드디어 D-Day. 항상 그렇듯이 거금을 터는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영화는 재미있다. 그다지 유혈 남자하거나 잔인하지 않아 좋다. 잔잔한 스릴러 물. 여자들이 만으로 돈을 톤다는 발상도 재미있다. 반전에 반전도 물론 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다. 그 중에서도 주연 Viola Davis와 Elizabeth Debicki가 눈에 띈다. Viola Davis의 중후하고 침착한 연기가 좋다. 큰 도둑의 우두머리 담당. 엘리스 역의 Elizabeth Debicki는 출신도 특이한데 폴란드계 아버지와 호주 국적의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호주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다. 그녀는 엄청난 큰 키 때문에 눈에 확 띈다. 하이 힐을 신고 그녀의 슈가 대디 (sugar daddy)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도 키가 커서 아래 위로 늘렸다 하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찾아 보니 키가 무려 190 센티미터. 아마 유사이래 가장 키 큰 여배우가 아닐까? (그래서 그 큰 키 때문에 The Man from U.N.C.L.E. 이란 영화에서는 악역으로 나온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후원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총 모금액

TOTAL

\$460,671

<모교발전기금 포함>

증신이사 (\$3,000) 명단

골드 이사 \$10,000 이상 실버 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영준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흥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한흥택 (공대 60) 한호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동 (법대 60) 민홍희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윤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경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묵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영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약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케네디** 김화순 (수의 68)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및 기증(Gifts)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시오.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

3월 후원자 (감사합니다)				지부 분담금 (감사합니다)			
이선구 (문리 65)	오영숙 (간호)	김기수 (공대 74)	심상은 (상대 54)	워싱턴 D.C 지부 (회장: 정평희)	남가주 지부 (회장: 민일기)		
김기현 (문리 52)	황만익 (사대 59)	김정화 (음대 56)	박서규 (법대 56)	시카고 지부 (회장: 장윤일)	미네소타 지부 (회장: 송세진)		
				하와이 지부 (회장: 성낙길)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89명)									
(G) 골드 이사 오인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오재인 (치대 33) 오희중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법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우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제영애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삼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순석보 (공대 6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식 (법대 58) (G)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기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만흥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회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규 (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훈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헌 (경영 66) 증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종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록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6,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전희장단 이월금		모교발전기금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후열) 500		뉴잉글랜드		이상강(의대 70) 200
(6/23) 30,000		남세현 (공대 67) 2,000		신승남 \$16,947.74				윤상래 (수의대 62) 500		오하이오
(10/31) 27,365.02		오인환 (문리 63) 300		서울 총동창회 3,000				김광수 (문리 77) 200		성훈환 (수의대 75) 300
.....		박원준 (공대 53) 3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김정환 (공대 52) 200		
		권철수 (의대 70) 1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업소록 광고비		오석일 (의대 64) 1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미네소타		일리노이
강신용 (사대 73) 240				강애드 (사대 60) 500				김관식(공대 61) 500		조형원 (약대 50) 500
이경선 (인문 83) 24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곽선섭 (공대 61) 300				문성민 (공대 88) 50		홍청일 (약대 57) 200
정세근 (자연 82) 240		(2019/7/1~2020/6/30)		권문웅 (미대 61) 200				차재호 (농대 84) 50		이영우/김동희 200
강호석 (상대 81) 240				김광호 (문리 62) 1,000						(문리 66)/(공대 66)
엄달용 (공대 76) 240		장학금		김승호 (공대 72) 2,000				메사주세츠		김성범 (상대 50) 200
유창호 (약대 74) 240		이용락 (공대 48) 500		김중용 (사대 53) 300				고종성 (사범 75) 400		
이경림 (상대 64) 240		정진수 (공대 56) 425		김해암 (의대 52) 1,000				김광수 (자연 73) 200		
이병준 (상대 55) 240		오인환 (문리 63) 200		노명호 (공대 61) 1,000						
이준영 (치대 74) 240		임필순 (의대 54) 100		노용면 (의대 48) 100				노스캐롤라이나		
이종보 (간호 69) 240		이원설 (농대 77) 100		민준기 (공대 59) 300				권철수 (의대 57) 700		서윤석 (의대 62) 200
정재훈 (공대 64) 480		황형상 (의대 55) 100		백영철 (농대 64) 2,000				김기현 (문리 52) 200		이영목 (공대 59) 200
김원철 (농대 70) 240		문성민 (공대 88) 100		정선주 (간호 68) 200				버지니아		이서구 (문리 61) 200
염동해 (농대 74) 240		이규만 (문리 61) 25		박윤수 (문리 48) 1,200				민흥기 (문리 61) 500		
김일탁 (공대 65) 240		조형원 500		박충수 (수의 58) 1,000				김진수 (의대 60) 100		워싱턴 주
김일영 (약대 61) 480				박희봉 (치대 63) 200						
최무식 (약대 66) 24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백승원 (의대 73) 1,500				매릴랜드		
		이채진 (문리 85) 100		석창호 (의대 66) 400				이선구 (문리 65) 200		
.....				신종철 (의대 57) 200				임광수 (의대 51) 200		
광고비		자부 분담금		성기로 (사대 57) 200				권철수 (의대 70) 200		
		(2019/7/1~2020/6/30)		손재욱 (가정 77) 500				김종호 (약대 68) 200		
한남체인 1,000		위싱턴 D.C.(1/17/20) 2,000		송몽길 (대원 69) 500				강길총 (약대 69) 200		
C THOMAS PARK PEDIATRICS 240		남가주 3,000		송학린 (법대 59) 650						
뉴밀레니엄 뱅크 1,000		시카고 (3/19/20) 2,400		신승남 (농도 70) 2,000				시카고		
키스프로덕트 1,500		하와이 (3/4/20) 300		연봉원 (문리 61) 300				이문학 (공대 48) 500		
(1/8/20) 1,500		미네소타 (3/13/20) 600		윤상래 (수의 62) 1,000				강영국 (수의 67) 200		
미래에셋 (~10/2019) 1,200				윤희상 (상대 66) 80				김연화 (음대 68) 200		
듀오(10/24/19) 400		특별후원금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성칠 (의대 71) 200		
(11/14/19) 400		28차 평의원의 후원금		이상우 (의대 62) 100				소진문 (치대 58) 200		
(12/11/19) 400				이수호 (보건 69) 200				오동환 (의대 65) 200		
(1/17/20) 400		서울 총동창회 3,000		이충무 (의대 69) 500				김일흔 (의대 51) 200		
(2/13/20) 400		김동희 (공대 66) 100		정정옥 (의대 60) 200				김태환 (의대 57) 100		
(3/13/20) 400		박평일 (농대 69) 200		조남천 (사대 59) 60				한재은 (의대 59) 200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웅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leedco@aol.com
3380 Flair Drive, Suite 225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d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광고주를 모십니다.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CareMax Pharmacy
유창호 (약대 74)
C: 909-229-7777
814 S. Alvarado St. L.A. CA 99057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나성 약국
임낙국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광고주를 모십니다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종 (문리대 61)
T: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곡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북가주 CA
정보 / 서비스
두리하나 결혼 정보
정지선 (상대 58)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운송 / 원자재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형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koak.com
의료 /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 301-220-2828 /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육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론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 광고주를 모십니다 /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역대회장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종광 (약)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집행부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텍사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문현호 (음), 한경진 (음)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종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oyoon@hotmail.com	
		차기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택(사대 72)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룡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http://healthcare.snuh.org>



최고의 의료진 · 정확한 진단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건강검진으로

최고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 +82-2-2112-5500 | healthcare@snuh.org

*동창회원 및 가족 10% 할인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EULSI GANGNAM CENTER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www.apwks.com

자동차 부품 도매(주)

Automotive Parts Wholesale Distribu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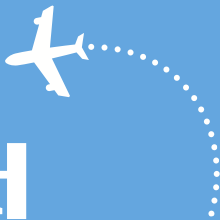
대표: 서동영(사대 60)

APW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최대 유통업체 입니다.
40년 넘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으며
고품질의 제품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310-753-9636 |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미주동창회 특별한 혜택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관악캠퍼스 2020 단기과정

* 지원료 60,000원
* 교내외 기숙사 선착순 이용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서류 접수 마감	등록금	비고
3주	2월 10일 - 2월 28일	1월 10일	770,000원	* 3주 과정 - 주5일, 오전 4시간 한국어수업 * 5주 과정 - 주4일 오전 4시간 한국어수업 주1일 한국문화 체험 (판문점, 박물관, 요리체험 등)
5주	6월 29일 - 7월 31일	5월 29일	1,540,000원	
3주	8월 3일 - 8월 21일	7월 3일	770,000원	

* 이외에도 관악캠퍼스에는 정규과정, 저녁반, 15주 과정 등이 있습니다.

시흥캠퍼스 2020 여름 프로그램

* 지원료 60,000원
* 시흥캠퍼스 기숙사 선착순 이용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서류 접수 마감	등록금	비고
스마트 초단기 한국언어 문화과정 (2주)	6월 8일 - 6월 19일	5월 4일	1,000,000원	* 한국어 수업 - 총 6일, 하루 6시간 * 문화 수업 - 총 4일 (K-POP 댄스, K-Beauty, 한국 요리, 태권도 체험 등)
	6월 15일 - 6월 26일	5월 11일		
	8월 24일 - 9월 11일	7월 20일		

* 이외에도 시흥캠퍼스에는 스마트 한국어과정(8주), 진학 목적 한국어 집중과정(7주) 등이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특별 혜택

- 미주 총동창회 추천 우수 동문자녀 장학금
(관악캠퍼스 5주/3주 과정등록금 전액감면각 1명)
- 미주 총/지역동창회 총34개 지역 추천 동문자녀 장학금
(각 3인 한정/관악캠퍼스 5주/3주 과정 등록금 10%감면)